월간 북한 동향

Monthly Report on North Korea

2026년 10월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과 언어표현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가. 언어표현 및 어문 규정 적용

o 북한 동향 주요 내용: <u>북한 원문 그대로 적용</u>

※ 예외 경우

① 북한인물 직책 표기 시, 직책이 여러 개일 경우 대표직책만 표기

② 국내 인사 실명 비난 시, 이름의 성(姓)만 공개 ex) 홍길동 → '홍OO'

③ 특정 행사 관련 내용은 △일시 및 장소 △참석자(주석단, 동행, 맞이 등) 별도 정리

o 남북한 표현 차이 및 띄어쓰기 관련

① 생소한 북한 단어는 '괄호'로 설명
ex) 짜고들어(계획하여), 전구(본보기가 될 행동이나 사실, 앞장서는 사람)

② 북한식 표현 중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각주' 처리

③ 북한 고유명사를 제외한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고려해서 국립국어원 기준 적용

④ 월간 보도일지·주요 인물 동정은 국립국어원 기준 적용

나. 주요 인물 동정

o 당 부장급 이상, 내각 상급 이상 등 그 정도 수준의 주요 인물로 한정

2. 본 자료의 내용들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원문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각 자료들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o 월간 보도일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보도일'을 기준으로 작성

※ 월간 북한동향에서 인용하는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약어로 표기

- 신문, TV, 라디오 : 노동신문 → '노동', 조선중앙통신 → '중통', 조선중앙TV → '조중TV', 중앙방송 → '중방'

o 동일한 내용을 다수 매체에서 보도한 경우, 보도순서에 따라 출처 표기

3. 본 자료에 수록된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표현 및 시기에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참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주요 동향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에 중국 창건 77주년 축전 · 6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석 ····· 7
《선진과학기술 및 제품전시회-2026》 개막 ····· 9
《국제노인의 날》 기념 동향 ····· 10
김여정 부장, 지뢰폭발 사고 관련 두 번째 대남 담화 11
김여정 부장, 지뢰폭발 사고 관련 추가 입장 발표 12
상원시멘트 연합기업소 3/4분기 인민경제계획 완수13
UN사무총장의 북한인권보고서 제출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 ····· 15
북한 극초음속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훈련 진행 ·· 16
북한 아시안게임 대표단·선수단 재일동포 환송모임 동향 ····· 18
경제 부문별 9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 19
가을철 역사유산애호월간사업 동향 ····· 21
외무성, 합참 최종 조사 결과 관련 비난 성명 ····· 23
노동당 창당 81주년 동향 ····· 24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 26
박태성 내각총리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 ····· 27
평양종합병원 창립 1주년 성과 선전 ····· 29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푸틴 대통령 생일 축전 ····· 30
김여정 부장, 대북 인도협력 계획 관련 비난 담화 31
북러 수교 78주년 기념 조선영화상영주간 진행 ····· 32
김여정 부장, 대북 인도협력 계획 관련 추가 입장 발표 33
선진과학기술 및 제품전시회-2026 폐막 ····· 34
미국 국무성 「2026 인신매매보고서」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 ····· 35
러시아 비상사태부 대표단 방북 ····· 36
의료기기·의약품 생산 및 국산화 성과 선전 ····· 38

김정은 위원장,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석 ····· 39
미사일총국, 전술탄도미사일·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 40
지방발전정책에 기여하는 비누 생산용 기름 원료 국산화 소개 ····· 41
우리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성공 관련 의문 제기 ··· 42
북러 수교 78주년 기념 양국 대사관 연회 개최 ····· 44
3/4분기 중 여러 단위에 2월2일제품, 품질관리·식품안전관리·의약품GMP·제품인증 등록 ····· 46
신압록강대교 개통식 진행 ····· 48
《비물질문화유산전시회》 개막식 개최 ····· 49
국방과학연구기관들, 신형 어뢰 무기체계 시험 진행 51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100주년 동향 ····· 52
세계컵태권도경기대회-2026 성과 보도 ····· 54
김여정 부장, 군사분계선 일대 우리 군대의 대응 비난 55
황해제철 산소열법용광로 및 대형산소분리기 보수 결속 56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미학토론회 진행 ····· 57
일본 정계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공물 봉납 관련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유가족협회' 대변인 담화 ····· 59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6》 개막 ····· 60
교육부문 궐기대회 진행 ····· 62
박정천 고문·김여정 부장, '국경 요새화' 현장 시찰 및 입장표명 ····· 63
김여정 부장, '국경요새화' 공사 현장 시찰 관련 추가 담화 ····· 64
국제경기 대회 성과 선전 ····· 65
김여정 부장, 김병주 의원 SNS 게시글 비난 ····· 66
시진핑 주석, 중국 건국일 77주년 김정은 축전에 답전 67
유제품 보장 육아정책 선전 ····· 68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 대회 진행 ····· 69
김정은 위원장, 중국 단둥 방문 ····· 70
UN 주재 북한 상임대표, '지뢰폭발사건' 관련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 서한 ····· 71
제18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개막 ····· 72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 73
공장·기업소 현대화를 통한 제품 질 제고 강조 ····· 74
국제경기 대회 성과 선전 ····· 76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 77
한미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 관련 국방성 대변인 담화 ····· 78
UN 북한인권 논의 관련 김성 UN 대표 담화 ····· 79
스위스 외교부장관 방북 ····· 80
지방공업공장 생산 정상화 강조 ····· 81
전국 모범 인민반장 평양 견학 진행 ····· 82
류경안과종합병원 창립 10주년 동향 ····· 83
MSMT 회원국 및 EU 공동성명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 ····· 84

주요 인물 동정 ····· 85

월간 보도일지 ····· 105

이달의 약사 ····· 108

북한 동향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에 중국 창건 77주년 축전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10.1. 중국 시진핑 주석에 중국 창건(10.1.) 77주년을 축하하는 축전을 발송(10.1. 노동·중통)

- 북중은 '18년 이후 매년 북한 정권 기념일(9.9.), 중국 국경절(10.1.) 계기 상호 축·답전 발송

o 예년대비 진전된 북중관계를 과시하며 축전 내용과 분량 면에서 대폭 변화

- 올해 축전 본문 분량은 949자로, 작년 667자에 비해 크게 증가
- "존경하는 총서기", "형제적 중국인민", "가장 열렬한 축하" 등 친선관계 반영
- △교류·협조 심화 위한 사업 설계·추동 △공동이익 고수, 지역 안정 수호, 인민 복리 증진 위한 노력 재확인 등 북중관계 지속적 발전 다짐

※ △조선대외문화교류협회, 조중친선협회 연회(9.29.) △주북 중국특명전권대사 연회(9.30.) 진행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1. 노동·중통)

o "존경하는 총서기 동지, 나 자신의 이름으로 … 형제적 중국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축원의 인사를 보냄"

- "당 제20차대회 정신에 부응한 … 괄목할 성과들은 나라의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지위를 강화", "습근평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정확한 영도 밑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반드시 성취하리라 확신"

o "지난해와 올해에 총서기 동지와 뜻깊은 상봉 … 조중친선관계를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국가 간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데 대한 입장과 의지 확인"

-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심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함께 설계하고 힘있게 추동", "피로써 맺어지고 진실한 동지적 우의로 계승",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로 인도함으로써 두 나라 공동의 이익을 철저히 고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양국 인민에게 더 큰 복리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입장을 재확인"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석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종합대학 창립(1946.10.1.) 80주년 관련 대학 축하방문 및 기념사진 촬영(10.1.-2. 노동)

- (9.30. 방문·연설) "사회주의 위업 전진을 담보하는 핵심보루", "교육강국·과학기술강국·인재강국 건설, 우리식 사회주의 발전의 3대 필수요구", "이 전략적 과업 실현에 주도적 력량과 견인력 필요, 바로 이 대학이 되어야"

  * △장소 : 김일성종합대학 △참가 : 교직원·학생·졸업생·평양 내 중앙급대학 학생, 국제학술토론회 참가 외국인·해외동포, 주북 외교대표부 성원, 유학생 △진행 : 연설 → 기념공연 진행

- (10.1. 교원·연구사들과 기념촬영) "전략적 과업 관철에 핵심적·주도적 활약"

o 창립기념일 관련 김 위원장 직접 대학 방문 및 연설, 대학의 위상·중요성 부각

  * 김정은 위원장, 70주년('16.10.1.)에는 별도 행사참여 없이 대학 교직원·학생들에게 서한[「주체혁명의 새 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9.27.)] 전달

- 향후 국가발전을 선도할 대학의 역할에 중점, '재창립' 수준의 발전 주문

※ 그 외 중앙보고대회(9.30.), 기념공연(9.30.), 국제학술토론회(9.29.-30.), 전시·경연 등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진행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1.-2. 노동·중통)

o "김일성종합대학의 영광넘친 80년 연혁에 경의를 표한다 - 창립 80돐 기념행사에서 한 김정은 동지의 연설"(10.1. 노동·중통)

- "김일성종합대학, 우리 국가를 상징하고 그 부강발전을 추동하여 온 관록있는 최고의 교육기관", "역사적 행로에서 국가발전에 중대한 공헌"
- "김일성종합대학은 사회주의위업의 전진을 담보하는 굳건한 핵심보루"
- "창립부터가 국가와 하나의 운명, 대학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을 견인", "대학의 기능과 역할, 조국의 오늘과 내일에 있어서 더없이 중대·결정적", "재창립과 같은 태동을 일으켜, 미래를 향한 든든한 전략적 궤도를 부설해야"
- "교육강국·과학기술강국·인재강국 건설, 우리식 사회주의발전의 3대 필수요구", "이 전략적 과업 실현에 주도적 력량과 견인력 필요, 바로 이 대학이 되어야"

- “조국과 인민에게 복무하는 혁명인재 육성해야”, “세계적인 일류급대학 건설, 대학 위신이 아니라, 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하고 강대한 국력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는데 주추가 될 인재 역량을 더 훌륭히 키우기 위해서”
- “학력이나 갖추고 출세의 발판을 닦는 귀공자나 공명주의자들이 아니라 조국·인민 위해 분투할 수 있는 애국자, 나라를 받들 복무자, 봉사자들이 자라야”
- “인민의 대학에는 불공정한 것, 불투명한 것이 있으면 안됨”, “공화국 헌법에 충실하고 도덕의리에 충실한 기강과 기풍이 교내에 차 있어야”
- “교육의 질적발전 이룩을 중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대학교원대열 강화, 교육강국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선결사업”
- “국가의 과학기술경쟁력을 장성시키고 경제의 선진화, 현대화에 이바지하는 연구사업 힘있게”, “첨단산업창설에서 핵심적 역할해야”
- “다른나라 명문대학,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교류와 협조도 활발하게 전개”
- “국가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우리 위업의 전진을 위하여 더 열심히 배우고 더 열심히 분투해야할 것”

o “김정은 동지,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기념사진”(10.2. 노동·중통)

- “공화국의 융성과 함께 대학이 걸어온 80년의 연혁, 당의 교육중시·인재중시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증견하는 역사의 축도”
- “조국의 미래를 위해 한 생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교원·연구사들의 애국적 헌신에 경의와 감사”
-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교육·과학기술·인재강국 건설의 전략적 과업 관철을 위한 핵심적·주도적 활약으로써 사회주의전면적발전 담보”

《선진과학기술 및 제품전시회-2026》 개막

1 개 요

o 북한은 《선진과학기술 및 제품전시회-2026》 개막(10.1. 노동·중통)

* △일시·장소 : 9.29. 인민대학습당 △참석 : 전승국 내각부총리, 김승두 당비서, 관계일군 등

o 본 행사는 "선진과학기술과 제품들의 보급, 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경제건설, 인민생활 향상, 과학기술, 문화 발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

* △(출품) 2,300여 건 △(참여) 금속·석탄·전력·화학·기계·농업·경공업·정보산업 등 530여 개 단위

- 개막사에서 연설자는 본 전시회가 "나라의 과학기술을 가일층 발전", "경제건설,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1. 노동·중통)

o "《선진과학기술 및 제품전시회-2026》이 개막"

- "이번 전시회는 선진과학기술과 제품들의 보급, 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 과학기술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
- "금속, 석탄, 전력, 화학, 기계, 농업, 경공업, 정보산업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530여개 단위가 참가"
- "전국과학기술축전, 부문별 과학기술성과전람회, 전시회 등에서 우수하게 평가를 받은 2,300여 건의 선진과학기술성과들이 출품"
- "개막식, 29일 인민대학습당",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승두 동지, 관계부문, 출품단위 일군, 근로자들이 참가"

o "내각부총리 전승국 동지가 개막사"

- "연설자는 이번 전시회가 나라의 과학기술을 가일층 발전시키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도약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국제노인의 날》 기념 동향

1 개 요

o 북한은 《국제노인의 날(10.1.)》*을 맞아 기념 동향을 보도(10.1.-2. 노동·중통)

* 인구 고령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와 노인의 권리·복지 증진을 위해 UN 총회 결의로 1990.12.14. 제정한 국제기념일

- 조선연로자보호연맹 중앙위, 연로자후원기금 모범기부자 등 참가 하 9.30.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기념모임 개최(10.1. 노동·중통)
- 한편, 전국 각지에서 국제노인의 날을 축하하는 기념 공연, 체육경기, 각급 정권기관 일꾼들의 양로원 방문 등 행사 진행(10.2. 노동·중통)

o △조선연로자보호연맹 중앙위 설치 △「연로자보호법」 채택 △전쟁노병보양소·양로원 설치를 비롯한 노인 시책 열거,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10.1. 중통)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1.-2. 노동·중통)

o "《국제로인의 날》 기념모임 진행"(10.1. 노동·중통)

- "9.30. 대동강외교단회관 진행", "조선년로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련관부문 일군들, 평양시 년로자와 년로자후원기금사업의 모범적인 기부자들 참가"
- "혁명선배들을 귀중히 여기고 우대해주는 사회주의제도", "사회적인 관심과 존경 속에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고 있는 년로자들", "당의 년로자보호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음."
- "전쟁로병들을 비롯한 혁명선배들을 존경하고 내세우는 기풍, 확고한 국풍으로 되게 할데 대한 당의 뜻"

o "당과 국가의 혜택 속에 만복을 누려가는 기쁨 - 각지 년로자들 국제로인의 날을 즐겁게 맞이"(10.2. 노동·중통)

- "각지에서 년로자들을 위한 예술공연, 체육경기 진행, 급양봉사단위들에서는 성의있는 봉사", "평양시안의 각급 정권기관 일군 양로원 찾아"

o "행복한 삶을 누리는 년로자들"(10.1. 중통)

- "오래전부터 년로자들의 권리와 리익 보장", "조선년로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를 내옴으로써 년로자보호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조직집행", "년로자보호법 채택, 생활조건 보장 위한 법적담보 마련", "전쟁로병보양소와 양로원들이 일떠서", "90살 이상의 년로자는 따로 정한 사회적 혜택을 받음."

김여정 부장, 지뢰폭발 사고 관련 두 번째 대남 담화

1 개 요

o 김여정 부장은 10.2. 지뢰폭발 사고 관련 두 번째 대남 담화를 발표(10.2. 중통)

* △9.30. 합참, "북한의 사과, 책임있는 조치 요구" △10.1. 대통령, "군사적 긴장완화 실질적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갈 것", "신뢰 회복, 대화 복원의 길에 북측도 함께 하길 기대·촉구"

- 김 부장은 △"적은 역시 적"이라고 규정 △우리 군의 발표를 "터무니 없는 결론" △대통령의 대북 입장 발표를 "자작광대극 2부 개막" 등으로 폄훼

o 북한은 지뢰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국군의 자작극" 주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남 '적대관계'를 재강조하기 위하여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보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2. 17시, 중통)

o "적은 역시 적임", "서울의 새로운 자작광대극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내리게 되는 중대 결론"

o "지뢰폭발사건이 그 누구의 《은밀하고 의도적인 지뢰매설》에 의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결론", "어설피기 그지없는 《공식립장문》이라는 것을 발표", "그 무슨 《사과》에 대해서도 운운"

o "우리가 왜서 한국과 엮이울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가", "국경선을 요새화하는 진의가 무엇인가", "한국과 마주설 일이 없게, 들짐승마저도 드나들 수 없게 영영 문을 닫아매자는데 목적", "우리는 한국이라는 족속들을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이 끼침", "영원히 악연을 끊어버리자는 것",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든 한국과 엮이거나 상종할수 있는 사소한 공간이나 여지도 허용하지 않음."

o "아래 것들은 조사결과 발표요, 공식 립장문발표요 하면서 남에게 생트집을 잡는데 여념이 없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 무슨 기념식이라는데 출연하여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하게 취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 "자작광대극의 제2부가 막", "광대극의 대본작성과 연출, 연기에 공을 들인자들에게는 응당 값비싼 《표창》이 차례져야 할 것"

김여정 부장, 지뢰폭발 사고 관련 추가 입장 발표

1 개 요

o 김여정 부장은 10.2. 지뢰폭발 사고 관련 추가 입장을 발표(10.2. 중통)

- 김 부장은 지뢰폭발 사고 관련 △우리의 대북제의에 대해 "대꾸 가치 없는 망상, 일방적 넉두리"라고 폄훼 △우리와 접촉·소통을 전면적으로 거부

* 10.2. 정동영 장관,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에 제의, 군사분계선 측정 소통 시작해야"

o △10.2. 17시에 발표된 김여정 부장의 담화에 이어 약 5시간 만에 추가 입장을 발표 △"국방성 군사대외사업국 사업 보고 받는 자리"에서 밝힌 입장임을 강조한 점 등이 특징적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2. 22시, 중통)

o "《우리는 조한사이의 접촉가능성이 제기될수 있는 사소한 공간이나 여지도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그것들과 마주설 일은 없을것이다.》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2일 국방성 군사대외사업국의 사업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말함."

o "한국의 정○○이 지뢰폭발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측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한 것과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기 위한 조한 사이의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데 대해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고 일방적인 넉두리》라고 일축"

o "《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군사주권문제를 적수국과 론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회담의 방법으로 국경선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주권행사 즉 힘의 사용으로 우리의 주권경계선을 긋는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o "어떠한 경우에도 조한 사이의 접촉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사소한 공간이나 여지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들과 마주 설 일은 절대로, 분명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 《한국과의 대면은 그 자체가 악몽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기 충분히 체험한데 따른 결론이다.》"

o "한국이 떠드는 소위 상응한 조치라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들이 어떠한 선택을 해오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여 있다.》고 확언"

상원시멘트 연합기업소 3/4분기 인민경제계획 완수

1 개 요

o 상원시멘트 연합기업소는 3/4분기 인민경제계획 초과 완수(10.2. 노동·중통)

- 상원은 2호 소성계렬대 보수 기간을 감축하는 등 △연합기업소 당위원회·참모부 △중앙조종실 △소성·조합원료 등 직장 일군·노동계급의 노력으로 증산 목표를 완수

  * △(연합기업소 당위원회·참모부) "선전선동공세" "생산조직 지휘를 일별, 교대별로 치밀하게 진행" △(중앙조종실) "현장의 기술자, 기능공들과 긴밀한 연계" △(소성직장) "가소로인입실(소성로 계열 설비에 원료를 공급하는 공간) 부착물 제거, 헛공기막이(공기유입 방지설비) 진행", "순회 점검 횟수 확대", "소성로 가동시간을 최대한" 확보 △(조합원료직장) "수십m 높이 싸이로 여러 차례" 점검 △(시멘트·분탄직장) "설비·기술관리", "집단주의기풍 발휘"

- 한편, 상원·삼청·일출봉 광산 및 화천탄광에서도 설비 기술 개선 및 채굴작업의 천공 및 발파 방법에 대한 기술혁신 운동을 진행하는 등 생산 확대 노력 강화

  * △(상원석회석광산) 박토와 광석의 대량수송이 가능한 "운광도로건설 선행" △(삼청광산·화천탄광) "채굴작업 기계화 비중 제고, 천공·발파방법을 실정에 맞게", "광차회귀시간 줄이기 위한 기술운동" △(일출봉광산) "당창건기념일까지 연간 전판암생산계획" 완수 목표 설정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2. 노동·중통)

o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노동계급이 계속혁신, 연속도약의 기상을 떨치며 3.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

- "2호 소성계열 대보수를 4일간이나 앞당겨 끝낸 일군들과 노동계급"
- "연합기업소 당 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선전선동공세를 참신하게 벌리며 노동자들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더욱 고조시키는 한편 사회주의경쟁을 부단히 심화"
- "당 위원회의 지도 밑에 연합 기업소 참모부에서는 2호 소성계열 대보수로 하여 설비의 가동시간이 현저히 줄어든 조건에서도 높이 세운 시멘트 증산목표를 기어이 수행하기 위해 생산조직과 지휘를 일별, 교대별로 치밀하게 진행"
- "소성직장의 노동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가소로 인입실부착물제거와 헛공기막이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순회점검 횟수를 늘리면서 소성로의 가동시간을 최대한 늘여"

- “조합원료직장의 노동자들도 생산의 첫 공정을 지켜선 자신들이 책임성을 높여야 질 높은 시멘트를 꽝꽝 생산할 수 있다는 투철한 관점 밑에 수십m 높이의 싸이로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오르내리면서 설비들에 대한 정상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시멘트증산을 담보”
- “시멘트직장과 분탄직장의 로동자들은 각종 분쇄기 등에 대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교대가 교대를, 작업반이 작업반을 도와주는 집단주의기풍을 적극 발휘,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
- “공무기지의 로동자들도 생산에 필요한 주물, 주강품과 긴급히 제기되는 부속품 생산과 가공을 제때에 신속히 보장”

o “상원석회석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 박토와 광석을 다량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운광도로건설을 선행시키고 현존설비들에 대한 기술개조를 힘있게 내밀어 설비능력을 끌어올림”

- “삼청광산과 화천탄광의 노동계급도 채굴작업의 기계화비중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합리적인 천공 및 발파방법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고 광차 회귀시간을 줄이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맹렬히 벌려”
- “일출봉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당창건기념일까지 연간 점판암 생산계획을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발파효율을 제고”

UN사무총장 북한인권보고서 제출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

1 개 요

o 외무성 대변인은 10.3. UN사무총장의 북한인권보고서 유엔총회 제출(10.1.) 관련 담화를 발표(10.3. 중통)

- 사무총장의 보고서 제출 직후 외무성 대변인 명의 신속 반응, '24년 국제기구 담당 부상 담화 대비 격 상향('25년 반응 無)

o 인권문제 제기를 미·서방의 적대정책 일환으로 주장, 유엔인권메커니즘 폄훼

- 보고서 내용보다는 "외곡날조", "불법적" 등 정당성 약화, "주권침해"로 간주

* "개별적나라 인권상황을 제멋대로 평가하는《보고서》발표놀음과《특별보고자》제도"

o 사무총장 교체기 염두 현 총장에 책임 전가 및 차기 지도부 압박 포석

- "유엔 창립이래 최악의 위기, 현 총장에게 전적 책임", "인권문제 정치화 관행, 다음번 사무총장 임기에 반복시 용납하지 않을 것"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3. 중통)

o "유엔사무총장, 모략선전으로 일관된 《인권보고서》라는 것을 총회에 제출"

– "미·서방의 제1대변인, 정치적 도구, 꼭두각시 전락 처지 여과없이 보여줌."

o "외무성, 유엔무대를 악의적 비난선동마당으로 전락시키는 적대세력과 무책임하게 편승하는 총장 행위에 경멸,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배격"

o "보고서, 미국·적대세력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대표적 산물", "유엔과 그 수장이 미국·서방에 얼마나 굴종적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o "유엔 창립이래 최악의 구조적, 도덕적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강권, 전횡에 침묵하고 추종하기까지 한 현 총장에게 전적인 책임"

– "인권문제 정치화 관행, 다음번 사무총장 임기에 반복시 용납하지 않을 것"

o "인권은 곧 국권, 어떤 경우에도 양도할 수 없는 절대주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권과 인권, 안전을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자기의 권익을 스스로 보장하고 철저히 행사해 나갈 것"

북한 극초음속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훈련 진행

1 개 요

o 김여정 부장은 미사일 발사 당일(10.3.) 전략무기 훈련진행 발표(10.3. 중통)

* 최근 지뢰폭발 사고 관련 김여정 연쇄 담화(9.30., 10.2.)에 이어 군사 분야 입장 표명

- 한·일의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 및 요격 제한을 부각하며 군사적 성과 과시

* "적들이 발표하는 탐지자료들은 탐지능력의 제한성과 우리 미사일의 특수성 가늠", "적들은 1차 도약점 이후 목표 소실",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음."

※ 합참, 북한 10.3. 06:30경 탄도미사일 1발 발사(원산→동해상, 700km 이상 비행)

o 김정은 위원장은 10.3. 새벽 극초음속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 '핵억제력 고도화 불변' 입장을 재확인(10.4. 노동·중통)

- 구체적 탄착좌표와 사거리(1,000km)도 공개하며 탐지 제한 재차 부각

* "이같은 활동은 명백히 핵전쟁억제력을 고도화하자는데 있음.", "이러한 우리의 견해와 노선에서 변화란 있을 수 없음."

- 미사일 발사 당일 김여정 부장 발표에 이어 다음날 노동 1면 보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3. 중통, 10.4. 노동·중통)

o (김여정 발표) "오늘 새벽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전략무기발사훈련이 진행"(10.3. 중통)

- "오늘 우리가 진행한 훈련을 탐지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이 700㎞이상, 일본방위성은 약 680㎞이라고 각각 발표"
- "적들이 발표하는 탐지자료들은 적들의 탐지능력의 제한성과 우리 미사일의 특수성에 대하여 가늠해볼 수 있게 함."
- "적들은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 "적들은 매번 지구곡률에 의하여 탐지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변명"
- "미사일의 속도를 알아야 함.", "저고도에서 비행궤도변경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한 우리의 발표들을 상기해볼 필요"
- "다시 말하면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
- "국가수반은 이러한 기술력은 최소 수년 간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다는 확신을 표명"

o (김정은 위원장 참관) “10월 3일 새벽 동부지역에서 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이 진행”(10.4. 노동·중통)

- “훈련은 극초음속 전략무기체계를 다루는 미사일병들의 화력복무능력을 숙련시키는 한편 우리의 전쟁억제력의 신뢰성과 효과성 평가사업의 일환 진행”
- (김 위원장)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 데 있음.”, “이러한 우리의 견해와 노선에서 변화란 있을 수 없음.”
- “훈련에 사용된 미사일은 북동 방향으로 발사되였으며 조선동해상 1,000㎞ 거리의 위도 43°36′28.04″,경도 138°00′47.02″설정 목표점을 명중”

북한 아시안게임 대표단·선수단 재일동포 환송모임 동향

1 개 요

o 북한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14개 종목 107명 선수단 파견, 최종 29개 메달 획득 및 종합 12위 달성(10.3.-4. 노동·중통, 10.5. 조선신보)

* 참가 종목 : 축구, 역도, 레슬링, 유도, 탁구, 정구, 사격, 다이빙, 복싱, 기계체조, 가라데, 카누, 배드민턴, 체육 실기

** 메달(29개) : 금메달 7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

o 금번 아시안게임 기간동안 조총련은 북한 선수단 응원, 환영·환송 등 지원, 이에 김일국 체육상은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에게 감사인사 표시(10.5. 조선신보)

* 환송모임(5.4.) : △(장소) 나고야초급 △(환송사) 박구호 제1부의장 △(참가) 한동성(의장 겸 선전문화국장), 김영석(총련 아이찌현본부 위원장), 동포 등 130여 명

o 북한은 아시안게임 대회 성과 소식을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체제 결속력 제고

* 대회기간(9.19.~10.4.) 중 총 10일에 걸쳐 노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성과 선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3.-4. 노동·중통, 10.5. 조선신보)

o 아시아경기대회 소식

- "여자축구 결승경기가 2일 진행, 우리 여자축구팀은 2위"(10.3. 노동·중통)
- "방철미 선수가 여자권투에서, 한청송 선수가 자유레스링에서, 박설금, 김옥주, 손일심, 김선향 선수들이 여자레스링에서, 김지혜 선수가 여자유술에서 각각 2위", "여자유술 경기에서 김현아, 문성희 선수들 각각 3위"(10.4. 노동·중통)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선수단 재일동포 환송모임"(10.5. 조선신보)

- "대표단과 선수단을 환송하는 모임이 4일 나고야초급에서 진행"
- "모임에는 재일동포중앙환영위원회 부위장인 총련중앙 박구호 제1부의장, 한동성 부의장 겸 선전문화국장, 총련 아이찌현본부 김영석 위원장을 비롯한 현내 기관, 단체 책임일군들과 동포들 130여 명이 참가"
- "제1부의장은 세계신기록을 수립하고 금메달 7개를 비롯한 많은 메달을 획득하여 조국의 영예를 떨친 대표단과 선수단 성원들을 열렬히 축하", "김일국 체육상이 맺음인사"
- "대표단, 선수단은 5일 일본을 떠났다."

경제 부문별 9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1 개 요

o 북한은 경제 부문별로 3분기와 9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선전(10.3. 노동·중통)

* 월별·분기별, 상·하반기별로 월초에 각 부문별 인민경제 계획 완수 성과 보도

o 금속-화학-전력-석탄-기계-채취공업 순으로 성과 언급, 기간 공업 부문을 우선시

- △(금속) "자립경제의 강철기둥" △(화학) "나라의 핵심공업", "사회주의농업전선 병기창" △(기계) "경제발전과 기술적 진보의 기초" 등 표현으로 중요성 강조

o 다만,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완수 보도(7.3.) 대비 구체적 증산 실적·수치 제시 부족

* △상반기 보도(7.3.), "흥남비료, 2,000여t 비료 증산", "남흥청년, 6월 일평균 106% 실적" △7월 계획 완수보도(8.3.), "북창탄광, 7월 수천t 석탄 증산", "상원시멘트, 1만t 시멘트 증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3. 노동·중통)

o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에서 3.4분기, 9월 인민경제계획 성과적 완수"

o (금속공업) "김책제철, 3.4분기 선철, 압연강재생산계획을 완수"

- "생석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생산공정 확립", "선철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게 탈린(P), 탈류(S) 공정을 개선"
- "무산광산, 선진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철정광생산", "흥남전극공장, 생산을 활성화하여 9월 계획을 넘쳐 수행"

o (화학공업) "남흥청년화학에서 무연탄소비기준을 낮추면서도 시간당 증기 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기술혁신활동을 전개"

- "흥남비료, 가스발생로의 성능을 갱신하는 등 9월 계획을 기한전에 결속", "봉화화학공장, 평양고무공장에서 원료, 연료보장대책을 선행, 제품생산 실적"

o (전력공업) "평양화력발전소, 타빈, 보이라(보일러)대보수를 혁신적으로 전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실속있게 하면서 가동률을 제고하여 전력 생산"

- "청천강화력발전소, 동평양화력발전소도 연소효율을 높이고 생산적 양양"

o (석탄공업) "북창지구청년탄광, 계획보다 많은 석탄을 증산"

- “순천지구청년탄광, 천공방법과 발파방법을 받아들이고 단위별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전개하여 석탄산 높이 쌓아”

o (기계공업) “기계공업부문, 여러 부문에 필요한 대상설비생산에서 성과”

- “룡성기계, 주물품생산기일을 훨씬 단축”, “각종 압축기와 감속기 등 대상 설비들을 질적으로 생산”
- “평양326전선종합공장, 설비들의 설비 갱신, 생산 활성화”

o (채취공업) “문평제련소, 저농도폐가스를 이용한 류산 생산공정 확립 비롯한 생산공정 및 설비들의 기술개건 사업을 실속있게 추진”

- “전기로의 합리적인 조작방법을 탐구도입하고 전해공정의 원활성보장”, “유색금속생산량을 1.2배로 장성”
- “리원광산, 플라즈마절단기를 이용하여 분쇄기, 파쇄기의 가동률을 제고”

o (임업) “3.4분기 통나무 생산계획이 120% 이상으로 완수”

o (건재공업) “상원시멘트, 3.4분기 계획을 드팀없이 완수”

- “순천시멘트, 계통별·공정별 점검보수, 주요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
- “천내리시멘트공장 등에서도 실적, 대안친선유리공장, 매일 계획 넘쳐 수행”

가을철 역사유산애호월간 사업 동향

1 개 요

o 북한은 가을철 역사유산애호월간 사업 시작을 알리며 가을철 역사유산애호월간 사업의 구체적 대책을 제시(10.4. 노동)

- 모든 지역들에서 역사유적·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구역의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찾아 대책 수립 및 책임적인 보존관리

  * 역사주의적 원칙에 맞게 △옛성들 시설물 관리 및 단청보색, 울타리 조성 등 원림조성 △명승지 봉사건물, 안내판 등 시설물 관리 △역사박물관의 유물보존, 조사연구 등 학술적 진행 △역사유적보호구역의 원림화사업 등

- 특히, 역사유산보호부문 일꾼들의 높은 책임감·깨끗한 양심을 강조, 역사유산 보호관리사업에 대한 전사회적인 관심을 높이도록 주문

  * 과학연구기관들과 연계하여 역사유적·유물보존관리에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역사유산보호관리 관련 감독통제를 강화

o 북한은 매년 민족유산애호월간(4월과 11월) 계기로 전군중적 운동을 전개하여 민족유산 발굴·보수·관리를 위한 대책을 주문, 민족유산 보호 통한 애국심 고취

  * 올해 5월까지는 "봄철 민족유산애호월간사업"으로 보도(5.7. 노동), 기존 민족유산에서 "역사유산"으로 명칭 변경 확인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4. 노동)

o "가을철력사유산애호월간사업이 시작되였다."

- "해마다 봄철과 가을철에는 력사유산애호월간사업이 전국적범위에서 진행, 력사문화유산들을 적극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인민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유산을 계승발전시켜 우리의 유구한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애국사업"

- "이번 가을철력사유산애호월간사업의 중심은 전반적인 력사유적들을 수복정리하고 그 면모를 일신", "모든 지역들에서는 력사유적과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의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을 세우면서 보존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 "력사주의적원칙에 맞게 보존관리하면서 단청보색과 생울타리를 비롯한 원림조성", "옛성들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면서 성돌쌓기와 성토, 시설물 설치와

보색, 보호울타리조성, 잔디심기를 잘하며 보호구역안을 정리정돈", "력사박물관들의 유물보존과 조사연구, 유물수집과 등록, 진렬전시를 학술적으로, 실효성있게 진행하는 것과 함께 박물관내외부를 잘 꾸려 대중교양장소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력사유적보호구역을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며 국가표식주와 설명판을 보수보색하기 위한 사업도 놓치지 말아야"

- "력사유산보호부문 일군들이 가을철력사유산애호월간사업에 높은 책임성과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떨쳐나서야, 과학연구기관들과의 련계밑에 력사유적과 유물보존관리에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내미는 것과 함께 력사유산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 력사유산보호관리사업에 대한 전사회적인 관심을 부단히 높여야"

외무성, 합참 최종 조사 결과 관련 비난 성명

1 개 요

o 외무성은 10.5. 합참 최종 조사 결과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10.6. 중통)

* 10.5. 합참, "북한의 사과 및 즉시 지뢰제거 촉구", "자진 미철거 시 우리 군 철거 작전 진행"

o 김여정 부장이 주장해 온 "한국, 자작극" 주장을 반복하면서 우리 군이 요구한 북한의 지뢰 제거 요구를 거부

- 단, 향후 북한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 한, 우리 군의 DMZ 지뢰제거 활동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6. 중통)

o "한국은 국경 선일대에서 발생한《지뢰폭발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킨《최종조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하고《지뢰제거작전》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국가에 대한 《외교적 및 군사적대응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운운"

o "우리가 확언한 바대로 서울이 기획하고 연출한 자작광대극", "외무성은 한국의 추악한 시도를 전면배격", "남부국경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가 보다 단호하고 과감한 방식으로 행사될 것 천명"

o "우리와 무관한 지뢰를 제거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며 한국의 광대극에 우리가 같이 놀아날 하등의 리유도 없음", "그 군화발이, 그 불꽃이 우리 령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조선의 국경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행동을 취할 것", "앞으로 한국땅에서 류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며 전적으로 사고를 당한측의 책임"

o "자기 령토내에서 군사주권을 행하는 문제를 그 어떤 경우에도 적수국과 론의하지 않을 것", "협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행사로 주권령역을 수호할 것", "사소한 관용이나 양보, 묵과도 허용되지 않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관계에 림하는 공화국의 주권행사는 가장 단호하고 명백할 것"

노동당 창당 81주년 동향

1 개 요

o 북한은 노동당 창당 81주년(10.10.)을 예년(비정주년) 수준으로 경축(10.6.-11. 노동·중통)

- (김정은 위원장) 10.10. 경축공연 참석(평양체육관), 리설주·딸 동반
- (해외 축하) 외국 정상(라오스, 팔레스타인,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중국공산당 등
- (행사)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 금수산태양궁전(10.9.)·당창건사적관(10.10. 보도) 방문 △청년학생 야회(10.10.) △여자아이스하키 경기(10.8.) △국가미술전람회(10.7.~) △근로단체 행사 △'소년'호 농기계 증정 등

o 대외 메시지 없이 내부 결속에 집중, 당 중심 일심단결 및 충성·애국 주문

- 김정은 위원장, 경축공연 참석 외 공개활동 및 메시지 부재

  * △'15년(70周) 열병식 연설 △'20년(75周) 열병식 연설 △'21년 기념강연, 국방전람회 연설 △'24년 노동신문 담화 △'25년(80周) 무장전시회·당사적관·경축대회·열병식 연설

- 김 위원장 영도하에 '어머니 당'의 국방·경제 성과를 선전, 주민들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부여하며 5개년계획 첫해 목표 달성을 촉구
- 기 예고했던 '3호 구축함' 건조 등 창당일 계기 대규모 과업 달성 보도 無

  * 김정은 위원장, "올해 당창건기념일을 목표로 한 또 다른 구축함건조사업"('26.3.10.)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6.-11. 노동·중통)

o "조선노동당 창건 81돐 경축공연 진행"(10.11. 노동·중통)

- "공연무대에는 전인민적인 노동당 송가들과 애국의 노래들을 성악과 무용, 교예와 체조, 군악예식과의 예술적 조화 속에 형상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음."
- "공연은 위대한 조선노동당이 향도하기에 우리가 가는 길은 언제나 정의와 진리의 길이고 마중하는 미래는 끝없이 아름답고 창창할 것이라는 신심과 낙관을 배가해 주었음."

o "위대한 어머니 조선노동당 - 10월의 조국 강산에 넘치는 수천만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열기를 체감하며"(10.10. 노동 정론)

-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은 오늘 최고의 경지를 이루고 있음.”
- “힘이 없으면 존엄과 운명을 수호할 수 없는 이 행성에서 평화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는 위대한 당의 억척불변의 신조에 받들려 인민의 행복과 미래를 억척으로 사수할 수 있는 무진한 힘을 지닌 자주의 강국으로, 인민의 웃음꽃이 만발하는 참된 삶의 요람으로 솟아 빛나는 우리 공화국”
- “우리 당이야말로 인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고 분투하며 오직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어머니라는 절대적인 믿음, 이는 오늘 우리 인민이 안고 사는 운명과 미래에 대한 드팀없는 확신의 근본원천임.”
- “위대한 단결의 위력으로 우리 당과 인민이 받들어 올릴 사회주의 강국의 창창한 내일은 바로 그래서 예언이나 가설이 아니라 과학이고 진리인 것임.”

o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정책은 우리 인민의 드높은 자신심과 무한한 창조력의 원천”(10.6. 노동 논설)

- “전국을 동시에 개변시키는 대담하고 통이 큰 사업들이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힘 있게 추진되고 있음.”
- “우리 인민의 불굴의 개척정신과 창조의 억센 힘이 있어 그처럼 짧은 기간에 국가방위력 강화에서 급진적인 도약이 이룩되고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로운 장이 펼쳐졌음.”
-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노동당의 줄기차고 억센 향도의 힘이 있기에 바라는 꿈과 이상은 반드시 현실로 펼쳐진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안고 더 큰 자신심과 용기, 분발력으로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할 것임.”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10.5.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화상회의) 개최(10.6. 노동·중통)

* 제9차 당대회 이후 2번째('26.4.3.), 회의지도는 박태성(내각총리), 김덕훈(내각제1부총리) 등

** 참석 : 전현철(내각부총리), 이철만(농업위원회 위원장) 등 내각 성원 및 기타 관계자들

o 3·4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 현황 평가와 5개년계획 첫해 과업 관철 방안 토의·결정

- 증산투쟁으로 3·4분기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고 자립적 경제토대가 강화됐다고 평가, 일부 단위 결함과 편향을 타파하고 단위간 유기적 연계와 일치한 행동 통일 주문
- 아울러 △인민경제 전반에 대한 통일적 장악과 지휘 △주요 공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와 생산성 제고 △올해 농사의 성과적 결속 문제 논의
- 특히, 전력·석탄 증산을 강조하면서 △수도·지방 건설(화성지구 5단계, 지방공업공장) △국토환경보호 및 도시경영사업 △사회주의적 시책의 정상 집행 문제 토의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6. 노동·중통)

o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5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내각총리인 박태성 동지와 내각 제1부총리 김덕훈 동지, 내각부총리 박정근 동지가 회의를 지도”
- “3.4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 정형이 총화되고 새로운 5개년계획 수행의 첫해 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데서 나서는 방도적 문제들이 토의 결정”
- “3.4분기 괄목할 만한 성과 이룩, 자립적 경제토대 일층 강화, 일부 단위들의 결함과 편향들을 분석총화, 소극적이며 보신주의적인 일본새 혁신, 단위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 강화, 일치한 행동통일을 보장할데 대하여 언급”
- “경제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휘 실현, 주요 공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생산성 제고 문제,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할 데 대한 문제가 상정”
- “전력, 석탄공업 생산적 앙양, 화성지구 5단계와 지방공업공장 건설, 국토환경보호와 도시경영사업 혁신, 사회주의적 시책들을 정확히 집행해 나갈데 대한 토의”

박태성 내각총리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

1 개 요

o 박태성 내각총리는 2.8직동청년탄광과 순천기관공장, 황남 각지 농장 등을 현지요해
(날짜 미보도, 10.6. 노동·중통)

o (2.8직동청년탄광) 탄부들 격려 및 생산실태 점검

- "△예비탄밭 확보 △효율적 채탄방법 및 설비 도입 △애국탄증산투쟁 실시" 등 강조

o (순천기관공장) 현행생산, 개건현대화공사정형 점검

- "△질 제고 △부속품가공 정밀도 보장 △생산공정의 최량화·최적화 실현 원칙하에 설계·공사 진행" 등 지시

o (황남 농장) "△수확적기 설정 △노력·기계수단 합리적 배치" 등 강조

- "실용성있는 각이한 용도의 농기계들을 생산보장할 것" 언급

o (협의회) "탄광설비 보급 문제, 앞선 농사방법 일반화, 기름작물·당작물재배 장려" 등 문제 토의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6. 노동·중통)

o "내각총리 박태성 …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 현지에서 요해"

o "2.8직동청년탄광을 찾아 탄부들을 고무해주면서 탄광의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

- "예비탄밭을 충분히 확보하고 효율적인 채탄방법과 능률높은 설비들을 막장 작업에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대중운동열기를 고조시켜 애국탄증산투쟁에 떨쳐나가야 할 것 언급"

o "순천기관공장의 현행생산과 개건현대화공사정형 요해"

- "질제고를 첫 자리에 놓고 부속품가공의 정밀도를 보장할 것, 생산공정의 최량화·최적화를 실현하는 원칙에서 공정설계와 건축공사 다그칠 것"

o "황해남도 옹진군과 강령군, 벽성군의 여러 농장 요해"

- “지대별, 품종별에 따라 수확적기를 바로 정하고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벼가을과 탈곡을 제때 끝낼 것 강조”

- “늦곡식가을, 올곡식파종 동시 진행에 맞게 실용성 있는 각이한 용도의 농기계들을 많이 생산보장할 데 대하여 언급”

o “협의회들에서는 막장작업에 필요한 설비·기공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해줄데 대한 문제, 농업부문에서 앞선 농사방법들을 적극 일반화하고 기름작물, 당작물재배를 장려할데 대한 문제 토의”

평양종합병원 창립 1주년 성과 선전

1 개 요

o 북한은 평양종합병원* 창립 1주년 계기 그간의 활동·성과 종합 보도(10.6. 노동)

* △(착공) '20.3.17. △(준공) '25.10.6. △(개원) '25.11.3.

- 선진 진단·치료기술 도입, 임상연구 및 기술 보급, 학술교류, 전문 의료인력 양성, 병원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

o 당의 보건현대화 구상 실현을 위한 평양종합병원의 중추적·선도적 역할 강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6. 노동)

o "평양종합병원에서 지난 1년간 수많은 선진 치료방법 도입, 800여 건의 치료 경험 창조, 1,100여 건의 먼거리 협의와 기술 강의 진행"

- "보건 진흥의 주도자·선도자·방조자가 될 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지난 1년간 세계선진수준 치료 방법들을 림상실천에 도입, 우수한 치료 경험 중앙·지방에 보급, 전문가적 자질 갖춘 의료일군 대렬 늘이였음."
- "전문과별로 정확한 진단 및 치료 방법들을 확립하기 위해 1000여 건의 치료지도서 완성, 진단 및 치료지도서 보다 갱신", "3차원입체화상기술, 3D인쇄기술을 활용한 난도높은 치료방법들이 외과부문에 도입"
- "중앙급병원 원장·과장 대상으로 수차례의 선진기술 보여주기사업 조직, 지방병원들에 대한 먼거리협의는 1100여 건, 기술강의는 10여차 진행"
- "올해 새로 일떠서는 시·군병원 기술부원장들을 대상으로 지능의료봉사체계 관리운영 방법을 비롯 30여 건의 강의와 기술전습 진행, 10여 건의 치료지도서 작성, 의료일군·의료설비기사·의학정보기사 대상 기술전습"
- "전문과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선진적인 교육체계가 구축, 70여 명의 박사원 졸업생들이 전문분야를 대표하여 각 병원들에 파견"
- "병원에 구축된 지능의료봉사체계의 수준과 편리성, 실용성 높이기 위한 기능 보다 갱신, 원내의료활동과 경영활동의 종합적 정보화 수준 향상"
- "국가자료통신망(이동)에 《평양종합병원》 1.0. 개설", "현재 수자식 의료봉사망을 형성하여 주민들이 가정에서도 의료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전주민 의료봉사체계개발사업 본격적으로 추진"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푸틴 대통령 생일 축전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 생일(10.7.)을 축하하는 축전을 발송 (10.7. 노동·중통)

- 과거에는 정주년('12년 60세, '22년 70세) 계기로 축전을 발송하였으나 '24년 이후에는 비정주년 생일에도 3년 연속 축전 발송

o 정권수립일(9.9.) 계기 푸틴 축전에 대한 김정은의 답전에서 '공동사업'을 언급한 데 이어 '공동사업 확대발전'을 거론, 북러관계 발전 의지 부각

- 축전에서 "뜨겁게 포옹" 표현 등 정상 간 특별한 친분 강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7. 노동·중통)

o "가장 친근한 벗 푸틴 동지, 뜻깊은 탄생일을 맞는 당신에게 나의 가장 충심으로 되는 따뜻한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보냄."

- "지난 20여 년간 러시아는 당신의 탁월하고 노숙한 영도 밑에 세기적 발전의 새 전기를 창조, 강력하고 부흥하는 나라로 세계 정상에 당당히 자리매김"
-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헌신적 노력과 강인한 의지의 고귀한 산물, 이로 하여 당신은 러시아 인민의 높은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음."

o "나는 당신과 훌륭한 친분을 맺고 우리 두 나라 간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 있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함."

-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공동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조선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며 나 자신의 불변한 선택"
- "나라의 주권과 안전이익, 영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러시아 인민의 정의의 성전이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되리라 확신, 나의 변함없는 지지 재확언"
- "숭고한 경의와 전투적 인사를 보내며", "친근한 동지, 뜨겁게 포옹"

김여정 부장, 대북 인도협력 계획 관련 비난 담화

1 개 요

o 김여정 부장은 우리 정부의 의료장비 등 대북 인도협력 계획을 비난(10.8. 중통)

* 강동군병원 의료장비 지원 관련 1718위원회 대북제재 면제요청서 관련 보도(10.7. 연합)

o 김여정 부장은 지뢰 폭발 사고 관련 "한국, 자작극" 주장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대북 인도협력 계획을 비난하며 "정치적 도발, 주권침해" 등을 주장

- △우리 정부를 "천성적 바보" 등으로 비난하면서도 △"조한관계를 돌려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최대한 존중과 배려, 진심부터 보여야 할 것"을 언급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8. 중통)

o "7일 한국 당국은《의료장비를 지원》하는《제재면제요청서》라는 것을 지난 5월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라는데 제출하여 《면제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언론에 공개", "《의약품 및 의료장비부족과 보건상황의 악화》에 대해 운운하면서 《취약계층의 필수의료봉사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을 함부로 해댔음.", "우리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도발, 국법을 거스르는 엄중한 주권침해행위"

o "어설프게 조작한 자작극이 예상의 흥행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한국 것들이 급기야 들고나온 것이 《의료장비지원계획》이라는 광대극의 제2부"

o "저들의 《선의적인 태도》와 이를 거부하는 우리의 《상반되는 태도》를 비교시켜 그 무엇이라도 얻어보려는 음흉한 정치적 타산", "서울당국이 하는 짓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일방적인 판단, 일방적인 결정, 일방적인 발표로 범벅", "조한사이의 관계를 되돌려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하나하나의 언동에 상대의 감정을 의식하고 최대한의 존중과 배려, 진심부터 보여야 할 것"

o "한국과는 그 무엇을 주고받거나 엮이울 일이 일체 없으며 마주볼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공화국의 절대불변한 립장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함", "우리 국가와 인민을 모독한 한국의 죄과는 철저히, 깨끗이, 후회없이 계산될 것", "가장 적대적인 한국의 정체성과 조한관계의 적대적 성격은 결코 변할 수 없음."

북러 수교 78주년 기념 조선영화상영주간 진행

1 개 요

o 러시아에서 북러 수교 78주년 기념 조선영화상영주간 개막식 10.2 진행(10.8. 노동·중통)

* △(장소) 모스크바 △(참가) 러시아 외무성·문화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러시아협회 등 정부·단체·기관의 인사, 영화예술인·모스크바시민·조선영화상영주간 행사참가대표단·주러 북한 대사관 성원

* (진행) 러시아 문화상 축하문 낭독 → 발언들 → 혁명영화 <72시간>(전·후편) 감상

- (러시아 문화상 축하문) "쌍무문화협조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계기, 행사 통해 러시아 인민들은 조선영화예술에 대해 깊이 알게 되고 호상리해 증진"

* (기타 발언) 양국 친선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정신에 맞게 발전, 동 행사가 문화분야 협조 강화하는데 기여

o 북러간 주요 계기 시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양국에서 영화상영주간 진행

※ '18년 10월 북러 수교 70주년 기념 러시아영화상영주간(평양) 및 조선영화상영주간(모스크바) 개막 등 보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8. 노동·중통)

o "조로외교관계설정 78돐에 즈음, 조선영화상영주간 개막식 로씨야에서 진행"

- "올가 류비모바 로씨야문화상이 보내온 축하문이 랑독", "(축하문) 영화상영주간행사는 쌍무문화협조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계기, 행사를 통하여 로씨야 인민들은 조선영화예술에 대해 깊이 알게 되고 호상리해는 더욱 증진될 것"

- "(발언들) 조로수뇌분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전면적 개화기를 맞이한 두 나라사이의 친선이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맞게 발전", "행사가 문화분야에서의 협조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

- "혁명영화 《72시간》(전·후편) 감상"

김여정 부장, 대북 인도협력 계획 관련 추가 입장 발표

1 개 요

o 김여정 부장은 대북 인도협력 계획 관련 추가 입장을 서면 발표(10.9. 중통)

* 유엔 81차 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에서 남북이 지뢰사고 관련 '설전'(현지 기준 10.8. 오전)을 벌인 즈음 공개(현지 기준 10.8. 13시경)

o 김여정 부장은 △앞선 "자작광대극 련속편"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남 비난 수위를 제고 △대북 인도협력 불수용, 적대관계 지속 등 입장을 재확인

- 특히, "외교적 자충수, 패가망신" 등을 언급,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9. 중통)

o "한국의 《지뢰폭발》 자작극이나 《의료장비지원》 광대극은 우리 국가에 대한 체질적인 대결악습이 부어낸 동전의 량면일뿐 그 진목적은 단 하나 공화국의 존위와 영상을 어떻게 하든 깎아내리려는 흉심"

o "《인도주의지원》을 운운하던 한국의 량면성과 철면피성이 유감없이 진상", "스스로가 자충수를 쓰고 군사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패가망신》", "《인도주의지원》을 내세워 국제사회에 저들의 《선의적인 태도와 노력》을 우리의 《거부적인 립장》과 비교시켜 놓는 것을 줄거리로 한 어리석은 졸작"

o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할 바는 다하는데 보다 싶이 긴장격화는 서울의 책임이 아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속셈", "적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짐승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 "제1부에서는 《피해자》의 허상을 만들어내더니 제2부에서는 급작스레 난데없는 《인도주의》를 떠들며 《천사》로 둔갑하는 줄거리의 련속광대극", "공화국에 대한 그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군사적 및 도덕적 병행도발사건"

o "한국쓰레기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이 대를 두고 영존되도록 하는 데서 결정적이며 력사적인 기록", "서울의 치졸성에 대한 축도", "나는 국가수반의 위임에 의하여 그리고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더욱 분명히 한국의 인간쓰레기들을 외면하고 무시할 것이라는 것을 천명함"

《선진과학기술 및 제품전시회-2026》 폐막

1 개 요

o 북한은 《선진과학기술 및 제품전시회-2026》를 폐막(10.9. 노동·중통)

* 폐막식 △일시·장소 : 10.8. 인민대학습당 △참석 : 전승국(내각부총리), 김승두(당비서), 관계일군 등

o 내각부총리는 폐막사에서 본 전시회가 "모든 일군, 근로자들이 지식과 기술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도록 선진과학기술을 더 많이 연구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

* (참여) 국가과학원, 농업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김일성종합대학,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석탄공업성 연구원, 아침컴퓨터합영회사, 평양광명정보기술사, 푸른하늘무역회사 등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9. 노동·중통)

o "《선진과학기술 및 제품전시회-2026》이 폐막"

- "수많은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으며 성황리에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과학기술적안목과 시야를 더욱 넓혀주고 경쟁열의를 고조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
-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국가과학원, 농업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등에서 출품한 선진과학기술연구개발 및 도입성과와 제품들이 실용적이고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하여 호평"
- "김일성종합대학,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석탄공업성 석탄연구원, 아침컴퓨터합영회사, 평양광명정보기술사, 푸른하늘무역회사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도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내놓아 참관자들의 이목을 집중"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승두 동지, 관계부문, 출품단위 일군, 근로자들이 참가",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과 기술, 제품들에 해당한 증서가 수여"

o "내각부총리 전승국 동지 폐막사"

- "연설자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식과 기술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할 열렬한 애국충의심을 지니고 선진과학기술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데 대하여 강조"

미국 국무성「2026 인신매매보고서」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

1 개 요

o 외무성 대변인은 10.9. 미국 국무성이 10.8. 발표한「2026 인신매매보고서」관련하여 담화를 발표(10.10. 중통)

* △미국「2026 인신매매보고서」, 북한 최저등급(Tier 3) 지속('03년 지정 후 지속 유지)
△보고서에서 '정치수용소, 강제동원, 해외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등 지적

- 미국의 인신매매보고서 관련 격 상향, 신속 반응('24·'25 인권연구협회 연구사 글)
- 인권 관련, 유엔사무총장 인권보고서 제출 비난 담화(10.3.) 이후 6일만

o 인권문제 제기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일환 및 '체제전복' 의도로 규정, 강력 규탄

- 미국을 '세계최대 인신매매범죄국' 지칭, 보고서는 내정간섭 수단으로 폄하
  * "다른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 제도전복을 합리화하기 위한 허위문서장에 불과"
- "인권=주권" 강조, "대미 최강경대응", "강력한 힘" 등 국방력 정당화 논리 활용
  * "기타 적대행위와 함께 대미최강경대응의 우선 적용대상", "타협 불가의 인권기준인 주권 수호, 제도보위를 위한 가장 단호하고 결정적인 행동실천으로 미 적대행위 무력화"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10. 중통)

o "미 국무성, 조선을 또다시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 감행", "인권 정치화·무기화", "주권침해", "강력규탄"

- "인신매매 범죄는 대대로 내려온 미국사회의 악폐이자 미국의 특산전매품"

o "보고서 발표를 결코 연례적, 형식적 습관성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음."

-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변함없는 계승으로, 우리의 제도전복과 내부와해를 노린 대결기도의 연속성으로 간주할 것"

o "대조선정책 본질은 우리 인민의 생존권, 발전권 말살", "우리가 국권사수를 위한 강력한 힘의 구축에 전념해야 할 주되는 사유"

-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공민들의 권익을 위협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인권 소동은 기타 적대행위들과 함께 대미최강경대응의 우선적 적용대상"

러시아 비상사태부 대표단 방북

1 개 요

o 러시아 비상사태부 대표단(단장: 알렉산드르 쿠렌코프 장관)은 10.11.-13. 북한을 방문(10.12.-14. 노동·중통)

* 일정 : △김철남(재해방지상)-비상사태부 장관 회담 및 환영연회(10.12.) △박태성(내각총리) 접견(10.13.)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국가선물관·만경대학생소년궁전·해방탑 등 참관(10.13.)

- (회담) △양국 재해방지사업의 성과·경험 교환, 상호 교류·협력 확대발전 위한 문제들 토의 △북러간 '27~'29년 협조계획서 조인

* 이수길 재해방지성 부상, 안드레이 포드 욜리셰프 러시아 특명전권대사 등 참가

o 북한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24년) 이후 북러간 재해방지사업에서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재난대응 역량 제고 도모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12.-14. 노동·중통)

o "러시아 비상사태성대표단 도착"(10.12. 노동·중통)

- "비상사태상 알렉싼드르 꾸렌꼬브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비상사태성 대표단, 11일 평양에 도착",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재해방지상 김철남, 러시아 대사관 공사참사 울라지미르 또뻬하가 맞이"

o "재해방지상과 러 비상사태상 사이의 회담 진행"(10.13. 노동·중통)

- "재해방지상 김철남-비상사태상 알렉싼드르 꾸렌꼬브 사이의 회담이 12일 평양의사당에서 진행", "회담에는 재해방지성 부상 리수길, 관계부문 일군들, (러시아)비상사태성대표단 성원들, 주북 러시아 특명전권대사 안드레이 뽀드욜리쉐브가 참가"
- "회담에서 두 나라 재해방지사업에서 이룩한 성과·경험 교환, 쌍무교류와 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 토의", "재해방지성과 러시아 민방위, 비상사태 및 자연재해후과제거성 사이의 2027-2029년 협조계획서가 조인"
- "이날 저녁, 재해방지성은 러시아 비상사태성대표단을 환영연회"

o "(북) 내각 총리 박태성, (러) 비상사태상을 만남"(10.14. 노동·중통)

- “내각 총리 박태성, 13일 평양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러시아 비상사태상 알렉싼드르 꾸렌꼬브를 만남”, “재해방지상 김철남, 외무성 부상 김정규, 러시아 비상사태성대표단 주요성원들, 우리 나라 주재 러시아 특명전권대사 안드레이 뽀드욜리쉐브 참가”, “담화는 동지적·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

o “러시아 비상사태성대표단, 여러곳 참관 및 귀국”(10.14. 노동·중통)

- “13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국가선물관·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 참관하였으며 해방탑을 찾음.”, “13일 귀국,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재해방지상 김철남, 주북 러시아 특명전권대사 안드레이 뽀드욜리쉐브가 전송”

의료기기·의약품 생산 및 국산화 성과 선전

1 개 요

o 북한은 의료기기·의약품 생산 및 국산화 성과 선전(10.12., 10.17. 노동)

- △(묘향산의료기구공장) 신설 병원에 공급할 수십 종의 의료기구 생산 추진
  △(매봉산의료용소모품공장) 생산효율·품질 개선, 병원수요 연계 품목 증대
  △(동산제약소) 감기 치료·예방 위한 고려약 제조기술 연구 및 특허 등록

o 지방병원 건설 확대에 따른 의료기구 생산 등 운영 기반 마련 추진

- 자체 기술혁신·연구개발 등을 통한 보건의료 분야 국산화 강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12., 10.17. 노동)

o “새로 일떠서는 병원들에 보내줄 의료기구 생산성과 확대 - 묘향산의료기구공장에서”(10.12. 노동)

- “현재 공장에서 수많은 부분품을 제작함으로써 진찰 침대, 이비인후과 종합치료기, 환자운반 밀차 등 의료기구 생산기일을 앞당기는 담보 마련”
- “올해 공장앞에는 새로 일떠서는 병원건설에 필요한 수십종의 현대적인 의료기구를 생산하여야 할 과제가 나서”
- “공장의 기술집단은 여러간의 기술혁신안을 내놓아 원단위 소비기준을 낮추면서도 질높은 의료기구부분품을 만들어내는데 이바지”

o “매봉산의료용소모품공장, 새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역량 강화”(10.17. 노동)

- “종업원들속에서 창의고안, 기술혁신안들이 쏟아져 나오는 과정에 하루 생산양을 몇시간 만에 끝내면서도 제품의 질 높일 수 있는 토대 마련”
- “현재 평양산원·옥류아동병원·강원도종합병원 의료일군들과 긴밀한 연계, 치료에 많이 이용하는 소모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기술혁신운동도”

o “효능 높은 고려약 제조기술 확립”(10.17. 노동)

- “의학연구원 연구사, 효능 높은 고려약의 제조 방법을 새롭게 확립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
- “동산제약소, 돌림감기에 대한 치료·예방을 고려약으로 하기 위한 연구 심화”, “이들이 연구개발한 효능높은 고려약 제조기술은 특허로 등록”

김정은 위원장,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석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10.11. 창당 81주년 관련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에 참석(10.13. 노동·중통)

* 참석 : 김정은 위원장 딸, 리설주, 당 중앙위 비서,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 국방공업부문 지도간부, 국방성 지휘관, 군종사령관, 대연합부대 지휘관, 국방혁명박물관 일군·종업원 등

** 식순 : 군악예식 → 국가 주악 → 영상물 시청 → 연설(김정식 당중앙위 제1부부장) → 테이프 커팅(김정은 위원장) → 관람

- 대륙간탄도미사일·극초음속미사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무인기 등을 대거 전시하며 전략무기 과시

o 김 위원장은 국방성과를 부각하며 군사력 강화 의지 피력

- "우리 국가의 안전이 어떻게 지켜지는가를 보여주는 불멸의 문헌고, 국보 중의 국보"
- "세계최강의 국방공업 건설은 응당한 천직", "강위력한 주체병기들은 줄기차게 개발완성 될 것" 언급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13. 노동·중통)

o "당창건 81돌에 즈음하여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이 개관"

- "박물관은 우리 국가가 지닌 절대의 힘을 과시하는 만년대계의 대국보관"

o (김정식 연설) "국방혁명박물관은 당의 영도 밑에 군수공업이 아로새겨온 발전사의 긍지높은 총화", "우리당 80여 년사의 최대의 영광"

o (김정은 언급) "국방혁명박물관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안전, 인민의 행복이 어떻게 지켜지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불멸의 문헌고이며 국보 중의 국보"

- "우리 당의 독창적인 자위노선과 국방발전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성원해준 우리 인민의 값비싼 승리"
- "우리 당에 있어서 세계최강의 국방공업을 건설하는 것은 응당한 천직"
- "강위력한 주체병기들은 독보적인 발전과 진화의 노정을 경과하며 더욱 줄기차게 개발 완성될 것"

미사일총국, 전술탄도미사일·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1 개 요

o 미사일총국은 10.12. 기술적 갱신 목적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실시(10.13. 중통)

- "모든 공격무기체계의 성능과 정교성 향상을 예고하는 성과"로 자평

※ 합참, 10.12.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 포착, 일부 900km 이상 비행

o 이어 10.14. 잠수함에서 두 종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실시(10.15. 중통)

* 참관 : 김정식(당중앙위 제1부부장), 장창하(미사일총국장), 해군 수중무기체계 기사

-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시험은 '24년 1월 이후 2년 9개월만

- 이번 시험은 수중전투체계 검열, 해군 전략적 임무수행능력 숙련 목적으로 설명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13., 10.15. 중통)

o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미사일총국은 12일 중요핵심요소의 기술적 갱신 성과를 확증하기 위하여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10.13. 중통)

– "해당 시험은 무기체계들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미사일총국과 관하 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

– "미사일총국은 오늘 확증한 핵심요소의 기술적 갱신은 모든 공격무기체계들의 성능과 정교성을 향상시키는데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성과로 된다고 발표"

o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미사일총국은 14일 조선동해에서 두 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10.15. 중통)

– "시험발사는 수중전투체계들의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검열하고 해군의 전략적 임무수행능력을 숙련시키는 데 기여, 전쟁억제수단들의 높은 신뢰성과 믿음성, 능력을 보여주는 데 이바지"

– "시험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음."

지방발전정책에 기여하는 비누 생산용 기름 원료 국산화 소개

1 개 요

o 북한은 비누 생산용 기름 원료의 국산화 성공 및 은천군 일용품공장에서 지역 자체 원료 활용 생산공정 첫 도입 사례 소개(10.13. 노동)

* "비누 생산에서 수입기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많은 단위에서 생산과 경영활동에 지장"

-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의 '기름 원료 국산화' 연구 성과와 은천군 일용품공장에서 100% 자기 지방의 기름 원료를 활용한 새로운 비누 생산공정 확립을 선전
- 한편, 이 기술을 전국 각지에 확대 도입, 비누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심화 강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13. 노동·중통)

o 지방발전정책 실현에 이바지하는 또 하나의 의의있는 성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비누 생산용 기름 원료의 국산화를 위한 새 기술 연구, 은천군 일용품공장에 도입

- "당의 지방발전정책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계의 창조투쟁이 심화되는 속에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에서 또 하나의 의의있는 성과"
- "비누생산에 필요한 기름 원료 문제를 100% 국내산 기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리가 큰 새 기술을 연구 도입하는데 성공"
- "비누 생산에서 수입 기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하여 많은 단위에서는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적지 않은 지장"
- "기름원료 문제를 철저히 국내산 원료에 의거하여 해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매우 절실한 문제"
- "은천군의 책임일꾼들은 김일성종합대학의 과학자들이 얻어낸 이 귀중한 연구결과를 대담하게 믿고 그 첫 도입자가 되어주어"
- "수개월간의 시험생산을 통하여 수입기름을 전혀 쓰지 않고 100% 자기 지방에서 나는 목화씨기름 등을 원료로 질높은 빨래비누를 생산할수 있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확증"
- "기름원료의 국산화를 위한 이 기술을 각지에 확대 도입하는 한편 비누의 투명도를 보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 계속 심화"

우리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성공 관련 의문 제기

1 개 요

o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은 10.15. 중통기자 문답 형식으로 우리군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성공(10.8.) 관련 군사기술적 의문 제기(10.15. 중통)

* 10.8.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최초 시험발사 성공 보도

- 동인은 공개사진을 근거로 비행 실패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리 극초음속 기술 폄하

* "초고온을 동반하는 극초음속 비행환경을 경과했다고는 믿을 수 없게 활공체 겉면에 그을음 하나 없고 도장이 깨끗", "사진들은 극초음속 비행을 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는 증거"

※ 한편, 당일(10.15.) 우리 국방부는 "국산 내열 소재로 극초음속 환경에서도 그을음 없는 열방호 성능을 구현했다"고 반박

o 연이어 김정식 당 제1부부장은 10.16. 우리군 발표 하루 만에 재반박하는 담화 발표(10.16. 중통)

- "한국 국방부 반박은 억지", "표면온도 상승으로 도색이 타버리는 현상은 막지 못함." 등 군사기술적 의문을 재차 제기

- 우리 극초음속 개발 계획 관련 "대결적 야심은 국방력 강화의 명분 제공" 주장, 무기 고도화 정당성 확보 시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15.-16. 중통)

o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기자 문답)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은 한국이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시험을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1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10.15. 중통)

- "물음 : 지난 8일 한국은 연구개발중인 극초음속활공비행체를 처음으로 시험 발사하였다고 발표하면서 여러 장의 사진들을 공개,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비행체가 바다에 떨어지기 직전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사진을 보면 초고온을 동반하는 극초음속 비행환경을 경과했다고는 믿을 수 없게 활공체 겉면에 그을음 하나 없고 도장색이 깨끗한 것을 볼 수가 있음."

- "극초음속활공비행체 시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비행체의 겉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 수가 없음.", "그 사진들은 극초음속비행을 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는 증거로 될 수 있음."

- “아마도 많은 국방기술 전문가들에게 있어서 한국이 공개한 이러한 사진들과 분명치 못한 발표내용은 여러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

o (김정식 제1부부장 담화) “한국 국방부가 《그게 기술》이라고 반박한 부분은 그 어느 나라의 기술집단도 납득할 수 없는 조금 창피하다 할 정도의 억지대목”, “과학적 해명이 부족한 변명”(10.16. 중통)

- “《국산내열소재의 우수한 성능덕분》이라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폈지만 그 어느 나라의 어떤 기술로든 항공 역학적 가열에 의한 표면온도 상승으로 도색이 타버리는 현상은 막지 못함.”

- (우리 극초음속 무기 고도화 계획 관련) “간악한 적들의 이 같은 대결적 야심은 우리에게 더없이 훌륭한 국방력 강화의 명분을 제공”, “이는 우리가 왜 압도적인 힘의 우세 노선을 변함없이 들고나가는가에 대한 명백한 설명”

북러 수교 78주년 기념 양국 대사관 연회 개최

1 개 요

o 북한과 러시아는 북러 수교 78주년(10.12.)을 기념하여 상대국 주재 대사관에서 각각 연회를 개최(10.15., 10.19. 노동·중통)

- △북러, 통상 수교일 전후 상대국 대사관 주최 연회 개최 △올해에는 모스크바에서 '조선영화주간'(10.2.-5.) 개최에 이어 양국 대사관 연회를 통해 수교 기념

o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10.13. 모스크바에서 연회 개최(10.19. 노동·중통)

* 참석 : △북한 - 신홍철(주러 북한 특명전권대사) △러시아 – 코즐로프(북러경제공동위 위원장 겸 천연자원부 장관), 외무·국방차관, 내무부, 연방평의회(상원), 국가두마(하원) 관계자 등

- 연설자들, 양국 간 "불패의 전우관계" 과시 및 협력 의지 재확인

* 주러 북 대사, "북러 친선관계, 양국 정상 간 가장 진실한 동지적 관계에 의해 전례없는 고조 국면 맞이", "북러관계 중시 및 공동사업 확대발전,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

** 외무차관, "양국 단결의 명백한 실증은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북한군이 참전한 것"

o 안드레이 포드욜리셰프 주북 러시아 특명전권대사, 10.14. 연회 개최(10.15. 노동·중통)

* △장소 : 대동강외교단회관 △참석 : 외무성 김정규 부상 및 관계부문 일군들

- 연설자들, "북러 친선 유대, 전성기 맞이" 언급하며 양국 관계 심화발전 강조

o 그 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스크 주북 대표부도 13일·16일 연회 개최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15., 10.19. 노동·중통)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간 외교관계 설정 78주년 즈음하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13일 연회를 마련"(10.19. 노동·중통)

–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 '24년 신조약 체결로 양국 협조발전의 새로운 단계 마련, 상기 조약이 존중과 신뢰, 공동 번영에 대한 양국 지향의 징표임을 강조"

– "러시아 외무차관, 양국이 주요지역 및 국제문제에 공통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주권과 국익존중에 기초한 정의로운 세계질서 수립을 위해 하나의 전선을 이루고 투쟁하고 있다고 연설"

– "러시아 국방차관, 양국 정상의 두터운 친분관계로 상호 관계가 보다 발전, 북러 동반자 관계 강화가 지역과 세계의 안전보장에 커다란 기여하리라는 확신 표명"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간 외교관계설정 78주년 즈음하여 주북러시아 특명전권대사 안드레이 포드욜리셰프가 연회 마련”(10.15. 노동·중통)

- “전통적 북러 친선의 유대는 양국 정상의 깊은 관심 속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 “신조약을 원동력으로 쌍무관계가 포괄적 영역에서 활력있게 심화발전”
- “강대한 국가건설과 인민 복리를 위한 양국의 성스러운 공동위업의 승리는 확정적”, “피로 맺어진 북러동맹이 영구불멸하리라는 확신 표명”

3/4분기 중 여러 단위에 2월2일제품, 품질관리·식품안전관리·의약품GMP·제품인증 등록

1 개 요

o 북한은 3/4분기 중 4개 단위에 2월2일 제품등록증, 100여 개 단위에 품질관리체계·식품안전관리체계·의약품GMP·제품 인증 등 수여(10.15. 노동·중통)

- (2월2일 제품) △평양악기공장 손풍금·바얀(아코디언) △평양정향건재공장 장식무늬 칠감 △평양가방공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우유사탕 등
- (품질관리체계)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평양화장품공장 △강서분무기공장 등
- (식품안전관리체계) △장풍군식료공장 △신양군식료공장 △북창군식료공장
- (의약품 GMP) △신의주제약공장 △함주군고려약공장 △우시군고려약공장 등
- (제품인증) 동평양금속건구공장의 접속구·소케트(소켓)·건축용장식무늬칠감 등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15. 노동·중통)

o "3.4분기간 4개의 단위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2월2일 제품등록증을 받았으며 여러 부문의 100여 개 단위가 품질관리체계인증, 식품안전관리체계인증, 의약품GMP인증, 제품인증을 받음."

o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기술혁신경쟁을 맹렬히 벌려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2월2일제품으로 등록"

- "평양악기공장에서는 과학기술 발전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손풍금과 바얀을 질 높게 생산하여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
- "평양 정향 건재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질 제고를 항상 우선시하며 인민들이 인정하는 제품을 한가지라도 더 내놓기 위해 노력하여 장식무늬칠감과 알키드수지에나멜을 2월2일제품으로 등록"
- "평양가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학생가방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
-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 제품의 질제고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실속있게 풀어나감.", "이 과정에 우유사탕을 비롯한 여러종의 제품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생산"

o “홍남비료연합기업소와 평양화장품공장, 평양식료품포장재공장에서 질산칼리움생산공정, 1회용물수건생산공정, 액체식료품포장용 수지병생산공정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을 품질기준에 부합되게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실질적인 전진”, “강서분무기공장에서도 기술혁신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 분무기생산공정이 품질관리체계인증”

o “장풍군식료공장과 신양군식료공장, 북창군식료공장의 여러 생산공정이 식품안전관리체계인증”

- “라선종합식료공장,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에서는 질이 보다 향상된 제품들을 내놓기 위한 기술개건사업을 목적 지향성있게 추진”
- “남포시즉석국수공장과 백송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한 많은 식료품생산단위에서도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고조”

o “신의주제약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설비들을 알뜰히 관리하고 생산환경을 위생문화적으로 잘 꾸리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항생제 생산공정의 GMP화를 실현”

- “함주군 고려약공장과 우시군 고려약공장을 비롯한 여러 고려약생산단위에서도 무균화, 무진화를 적극 추진하여 물약, 알약, 싸락약, 가루약, 빚어만든 알약생산공정들이 의약품GMP인증을 받음.”

o “동평양 금속건구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는 대중의 창의창 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켜 접속구, 소케트(소켓), 건축용장식무늬칠감 등을 높은 수준에서 생산하여 제품인증을 받는 성과”

신압록강대교 개통식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중국과 10.15. 신압록강대교 개통식 개최(10.16. 노동·중통)

- 착공식('10.12.31.) 이후 16년, 교량 본체 완공('14년 10월) 이후 12년 만에 개통

* 참석 : △(북) 양명철(평북도당 책임비서), 리정혁(평북도 인민위 부위원장), 리룡남(주중 북한 대사), 마종수(선양 북한 총영사) 등 △(중) 허곤림(랴오닝성 당 서기), 백영(랴오닝성 정부 부성장), 왕아군(주북 중국 대사), 조승(랴오닝성 당 선전부장) 등

** 식순 : 국가 연주 → 화상 축하 발언(리창·박태성) → 축하 연설(양명철·허곤림) → 테이프 커팅 → 양측 차량 다리 통과 → 개통 선포

o 중국 리창 총리, 북한 박태성 총리 화상 축하 발언 △북중 간 우호친선 강화 △상호 협력·발전의 계기 등 대교 개통의 의미 강조

- (리창) "대교 개통, 경제·무역 협력 촉진, 인적왕래·정서적 유대 강화", "북중 간 전통적 우의 상징하는 새 지표", "통관 최적화", "접경지역 협력 잠재력 발굴" 등
- (박태성) "압록강다리, 양국 부흥과 인민 복리증진, 경제협조 새로운 역동 부여"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16. 노동·중통)

o "조중압록강다리가 완공", "조중압록강다리 개통식이 15일 현지에서 진행"

- "각종 운수수단들이 안전통행과 인원 래왕을 보장할수 있는 압록강다리가 일떠서고 여행자검사장, 수출입품검사검역소 등이 꾸려짐"
- "조중 두 나라 사이의 경제적연계를 보다 강화해나갈 수 있게 되어"

o (리창)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친선 중시하는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

- "중조쌍방의 공동 이익과 전략적 환경 수호", "조선측과 함께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철저히 관철이행"
- "정치적호상신뢰 두터이하고 실무적협조를 확대, 중조관계의 심화발전"

o (박태성) "양국인민들의 친선의 유대를 굳건히 이어주는 의의깊은 계기"

- "조중압록강다리가 두 나라의 부흥과 인민들의 복리증진 위한 전진의 보무를 가속화하고 호혜적인 경제협조에 새로운 역동을 더해주리라는 확신 표명"

o (축하연설) "조중 두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설정과 중국인민지원군 조선 전선참전이라는 역사적 사변들을 아로새긴 10월 진행되는 압록강다리 개통"

- "새로운 높은 단계에 발전하고 있는 조중친선협조관계의 뚜렷한 증시"
- "조중관계의 강화발전 위해 쌍무교류와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갈 것"

《비물질문화유산전시회-2026》 개막식 개최

1 개 요

o 북한은 《비물질문화유산전시회-2026》 개막식(10.15.) 개최(10.16., 18. 노동)

* △(주제) 비물질문화유산의 보호와 계승발전 △(장소) 모란봉청년공원 △관계부문, 출품단위 일군 등 참가

- 90여 개 단위에서 내놓은 구전전통과 전통의술, 전통음식, 노동생활 풍습 등 140여 건의 국가·지방 비물질문화유산들 전시

* 농업위원회, 조선태권도위원회, 교육성, 문화성, 경공업성 등에서 《개성의 향토설화》, 《밤리용풍습》, 《꿩고기탕》, 《조선장단》, 《녀성들의 화장풍습》 등 출품·전시

- △비물질문화유산 발굴·고증사업의 성과 등 강조 △경험발표회 등 진행

* '26년에만 수십 개의 국가·지방 비물질문화유산 새로 등록(밤·산열매 이용풍습, 조선장단, 온달이야기, 개성의 향토설화, 식혜담그기, 꿩고기탕, 잣죽 등)(9.27. 중통)

o 북한은 역사유산보호정책의 일환으로 비물질문화유산의 적극적 발굴·등록뿐 아니라 전시회 등 대중 보급사업을 통한 보호·계승발전 강조

- '우리 문화·풍습, 우리식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는 긍지·자부심 고취

* '25년 첫 '비물질문화유산전시회'(10.27.-11.2.) 개최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16., 10.18. 노동)

o "《비물질문화유산전시회-2026》 개막"(10.16. 노동)

- "력사유산보호부문에 절세위인들의 업적과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더욱 빛내이며 전사회적으로 비물질문화유산보호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도록 하는데 목적", "《비물질문화유산의 보호와 계승발전》이라는 주제", "농업위원회, 조선태권도위원회, 교육성, 문화성, 경공업성을 비롯한 90여개 단위에서 내놓은 《개성의 향토설화》, 《밤리용풍습》, 《꿩고기탕》, 《조선장단》, 《녀성들의 화장풍습》 등 140여건의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들이 전시"

o "연일 성황을 이루고있는 《비물질문화유산전시회-2026》"(10.18. 노동)

- "지난해 처음으로 비물질문화유산전시회가 진행된 후 인민들속에서 비물질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 올해에만도 수십 개의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들이 새로 등록”

- (전시대) “김일성종합대학전시대, 생활풍습과 민속전통을 소개하는 50여 종의 도서들이 출품”, “조선옷차림풍습”, “고려치료 전통의술”, “살모사독제제에 의한 침혈부위주사료법”, “고려약초가공기술과 리용풍습”, “씨름과 윷놀이”, “소해금독주, 어은금중주, 태권도모범출연과 《강령탈춤》, 장고제주”, “지방공업공장전시대, 밤의 리용풍습, 산열매리용풍습과 엿달이기 풍습”, “평양냉면, 수정과, 노치, 막걸리” 등
- “우리의 문화, 우리의 풍습이 제일이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준 의의깊은 계기”

국방과학연구기관들, 신형 어뢰 무기체계 시험 진행

1 개 요

o 국방과학원·미사일총국·수뢰무기연구국은 10.15. 신형 어뢰 '잠-2.0' 수중시험발사 실시(10.17. 중통)

- 신형 어뢰에 'AI 기반 수중표적 탐지·유도 기능' 도입, '고속 추진장치' 기술 개선 등 주장
- 다만, 구체적 제원과 시험결과, 관련 사진은 미보도

o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10.14.)에 연이어 신형 어뢰 시험(10.15.)도 공개하며 수중무기체계 개발 지속 중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17. 중통)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국방과학연구기관들이 공동개발사업으로 추진해온 신형 초고속 정밀유도 어뢰무기체계 《잠-2.0》 실탄발사 시험이 진행"

-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 수뢰무기연구국은 15일 신형어뢰무기체계의 기술적 갱신성과를 확증하기 위하여 어뢰 수중시험발사를 진행"
- "해당 시험은 무기체계들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국방과학연구기관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

o "시험을 참관한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지도간부들은 이번 시험이 해군의 실질적 발전에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커다란 성과로 된다고 확신"

o "신형 초고속 정밀유도 어뢰의 목표탐색 및 유도기능에 인공지능기술이 도입"

- "이번 시험에서는 지난 5년간 180여차의 각이한 시험을 거쳐 완성된 추진효율을 높이는 핵심기술과 로켓 추진장치의 성능이 입증"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100주년 동향

1 개 요

o 북한은 타도제국주의동맹(《ㅌ.ㄷ》) 결성(10.17.) 100주년 기념행사 등 개최(10.17. 노동·중통)

* 타도제국주의동맹은 1926.10.17. 김일성이 만주 화전현 화성의숙 재학 중에 결성하였다는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반일투쟁 조직

- △중앙연구토론회(10.13. 인민문화궁전) △중앙보고대회(10.16. 인민문화궁전)
- 간부 △조선혁명박물관 참관(10.17.) △대성산혁명열사릉 화환 진정(10.17.)
- △직맹·농근맹·여맹 노작 연구발표모임(10.15.) △청년학생 웅변대회(10.15.) △청년학생 종합공연(10.16.) △각지 정치문화사업(10.18. 보도) 등

o 행사·보도를 통해 자주·사회주의 노선과 당 영도의 역사성·정당성을 선전

-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 중심 단결 △자주·자존 실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국가방위력 강화 △새 세대 육성 등을 주문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14.-17. 노동·중통)

o "주체혁명 위업은 만대에 불멸할 것"(10.14. 노동 논설)

-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역사의 전진을 힘 있게 이끌어 온 영광의 한 세기", "반제 투쟁의 기치 높이 굴함 없이 용진해 온 백전백승의 한 세기", "존엄 높은 인민의 나라를 세우고 인민의 행복을 끊임없이 창조"
- "조선 혁명이 장장 한 세기를 가장 곧바른 한길로 꿋꿋이 이어올 수 있은 근본 비결은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을 모신 데 있음.", "조선 혁명과 인민이 누리는 수령복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
- "김정은 위원장이 인도하시는 새 시대는 최강의 힘으로 절대의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해 나가는 존엄 높은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치 높이 주체의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부흥 발전하는 일대 변혁기", "김정은 위원장은 탁월한 사상가, 희세의 전략가, 비범한 실천가 … 근한 인민의 수령"
-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오직 한길을 따라 굴함 없이 싸워 나가야",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영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힘 있게 다그쳐 주체혁명의 새로운 투쟁사를 더 큰 승리와 번영사로 빛내여 나가야"

- “인민대중을 혁명의 백년 미래를 떠메고 나갈 강위력한 주체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 “새 세대들이 전 세대보다 정신도덕적으로나 문화기술적으로 보다 훌륭히 준비되여야”

- “반제 투쟁의 기치는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미래 건설의 강위력한 무기”, “제국주의 괴수를 주축으로 한 적대세력과 끝까지 결판을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한 달리 될 수 없는 역사의 필연”, “공화국 무력을 최정예화, 강군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 “급진적인 상승 궤도에 올라선 자위적 국방력을 부단히 강화”

o “《ㅌ.ㄷ》 결성 100돐 기념 중앙연구토론회 진행”(10.14. 노동·중통)

- “《ㅌ.ㄷ》의 결성은 인민대중의 자주 위업,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새로운 출발을 선포한 역사적 선언”, “조선노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 “주체혁명은 《ㅌ.ㄷ》가 추켜든 반제 자주, 사회주의 기치 높이 백승의 역사를 아로새겨 온 성스러운 위업”,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 따라 《ㅌ.ㄷ》의 전통을 계승하여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

o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ㅌ.ㄷ》에서 시작된 주체혁명 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10.17. 노동 사설)

- “《ㅌ.ㄷ》 결성 100돐은 … 조선혁명의 필승불패성을 뚜렷이 각인시키고 주체혁명 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갈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혁명적 기개를 높이 떨치는 의의깊은 계기”

- “김정은 위원장이 향도하시는 새시대는 주체혁명의 100년사에서 존엄과 강대함, 번영의 최절정을 이루는 동시에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앞길에 새로운 백년대계의 창창한 활로를 열어 놓은 역사의 분수령”

- “김정은 위원장의 사상과 영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자주, 자존의 정신을 체질화하고 모든 사고와 실천 활동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더욱 다그쳐 새로운 번영의 활로를 열어 나가야”, “반제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가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야”, “주체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 나갈 새 세대 육성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o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10.17. 노동·중통)

- “조선혁명의 전 노정은 《ㅌ.ㄷ》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과 사회주의 이념을 철저히 구현하여 백승의 행적만을 아로새겨 온 성스러운 행로”

- “《ㅌ.ㄷ》의 이념과 전통에 무한히 충실하여 우리 조국의 어제와 오늘을 더 승승할 미래에로 잇고 주체의 길을 곧바로 끝까지 가야 할 무거운 시대적 사명이 우리 모두의 배가된 분발력을 요구”

- “김정은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개척 세대가 그려 보던 아름다운 미래를 앞당겨 오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

세계컵태권도경기대회-2026 성과 보도

1 개 요

o 북한은「세계컵태권도경기대회-2026」성과 보도(10.17. 노동)

* △일정·장소 : 9.27.-10.2. 카자흐스탄 △참가국·인원 : 24개국 890여 명의 선수

- 동 대회는 2022년 국제태권도연맹(ITF) 주관으로 첫 개최, 2년 단위로 진행

* 북한은 2024년 동 대회 첫 참가, 금메달 10개 포함 총 19개 메달 획득

- 올해 대회에서 북한은 금메달 26개를 포함한 41개 메달 획득(10.7. 노동·중통)

* 우승 : △(겨루기) 김위성, 류성국, 김일혁, 김주일, 류경, 박설미, 한소연, 김류경, 민혜경, 박념원, 강철옥, 김평일, 문남훈, 황의성, 김정웅, 성인부류 여자 단체,
△(품새) 김일혁, 류경, 김지홍, 박념원, 김평일, 동충무, 윤장원, 성인부류 남·녀 단체, 청년부류 남자 단체

o 북한은 국제경기대회 성과 소식을 매체를 통해 보도,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체제 결속력 제고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7. 노동·중통, 10.17. 노동)

o “우리 선수들 26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41개의 메달 쟁취”(10.7. 노동·중통)

- “성인부류 남·녀 단체틀경기, 청년부류 남자 단체틀경기, 성인부류 여자 단체맞서기경기에서 각각 1위”
- “성인부류 남자개인틀경기에서 김일혁 선수가, 녀자개인틀경기에서 류경, 김지홍, 박념원 선수들이, 청년부류 남자개인틀경기에서 김평일, 동충무, 윤장원 선수들이 우승”
- “성인부류 남자개인맞서기경기에서 김위성, 류성국, 김일혁, 김주일 선수, 녀자개인맞서기경기에서 류경, 박설미, 한소연, 김류경, 민혜경, 박념원, 강철옥 선수, 청년부류 남자개인맞서기경기에서 김평일, 문남훈, 황의성, 김정웅 선수들이 1위를 쟁취”

o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또다시 빛내였다.”(10.17. 노동)

- “《세계컵태권도경기대회-2026》에서 26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41개의 메달을 쟁취한 소식은 온 나라 인민들을 또다시 기쁘게 해”
- “우리 팀 선수들은 여러 세부종목경기에서 높은 실력과 태권도의 발전 면모를 힘있게 과시”, “특히 국제경기경험이 전혀 없는 신진선수들과 성인부류와 청년부류의 경기에 처음 참가하는 선수들도 두각을 나타내”

김여정 부장, 군사분계선 일대 우리 군대의 대응 비난

1 개 요

o 김여정 부장은 10.19. 북한의 '국경화' 관련 우리 군대의 대응 비난(10.19. 중통)

- 우리 군대의 대북 경고방송·사격을 △북한의 "남부국경강화 활동을 방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는 '도발'로 규정·비난
- △"주권수호를 말로 하지 않겠다"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전술적 타격 수단 배치", "대(對)한국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검토를 주장

o 금번 담화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군대의 대북 대응을 위축시키고 △향후 북한의 대응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의도로 보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19. 중통)

o "남부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 "한국군부깡패들의 무모한 객기에 의해 남부국경선일대에는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음."

o "8.1~10.17. 확성기경고방송도발 2,870차, 경고사격은 201차", "확성기경고방송도발 2군단 7, 15보병사단, 3군단 21, 22보병사단지역의 초소들", "경고사격도발,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지대 278헌병초소", "10.1.~17. 확성기경고방송도발, 998차, 경고사격은 91차", "10.15.~17. 남부국경 여러 지역 확성기 경고방송을 350여차, 경고사격을 60여차 감행"

o "집권 초기부터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며 《유화적인 모습》을 연출하던 리◯◯정부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오히려 로골적으로 반공을 고취하던 악질보수정권인 윤◯◯ 정부를 훨씬 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o "저들의 《철저한 대응》을 《과시》하는 한편 우리의 남부국경강화활동을 방해하자는데 기본목적", "선제적이며 제압적인 조치로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전술적타격수단들을 전 남부국경선부근에 증강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확성기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 "명백히 다시금 강조하지만 우리는 주권수호를 말로 하지 않음."

황해제철 산소열법용광로 및 대형산소분리기 보수 결속

1 개 요

o 북한은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서 산소열법1호용광로와 함께 대형산소분리기의 대보수를 성공적으로 완결, 생산에 진입 선전(10.19. 노동·중통)

- 산소열법용광로와 산소분리기는 '산소열법'의 필수 설비로, 주기적 보수 필요

* '산소열법'은 북한에 풍부한 무연탄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코크스를 대체하는 '주체철 공법'의 일종으로 대형산소분리기를 통해 생산한 산소를 용광로에 주입, 선철의 생산을 촉진하는 방법

** 황해제철은 지난 '15년 11월 산소열법용광로를 건설, '16년부터 산소열법을 이용한 조업을 시작, '24년 12월에는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를 준공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19. 노동·중통)

o "황철의 로동계급은 짧은 기간에 산소열법1호용광로와 대형산소분리기 대보수를 성공적으로 완결"

- "주체철생산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용광로운영과정에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여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진전을 이룩"
- "산소열법1호용광로 건조화입에 이어 며칠전 첫 출선이 진행"

o "이번 대보수는 종전 로체와 과열기계통, 벽수관과 수분분리기, 냉각관을 통채로 들어내고 새로 제작, 설치, 여러 계통의 설비들을 보수해야하는 방대한 공사"

- "특히 산소열법1호용광로운영과정에 나오는 폐열에 의한 전력생산체계 환원 복구해야 하는 것으로 하여 복잡한 경제기술적난문제들도 제기"

o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대보수를 계획된 기간내에 완벽하게 결속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

- "제관직장, 보일러계통의 과열기해체와 조립, 로체냉각관해체 및 조립 등을 단 한 주일 만에 결속"
- "설비조립직장, 수 t이나 되는 권양기를 작업장가까이에 전진배치"
- "공무제관직장과 용광로 1직장, 압축기, 배풍기 등 여러 대상설비에 대한 보수 책임적으로 진행"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미학토론회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전국 각지의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을 소개하고 국토환경보호부문 미학토론회를 통해 국토관리사업의 성과를 선전(10.19. 노동, 10.22. 노동·중통)

- (성과 소개) 전국 각지에서 장석쌓기 등 강하천정리공사, 제방대 보수, 강바닥 파기, 산불막이선과 사방야계구조물 설치·보수, 나무모 확보 등 적극 추진
- (미학토론회) 사회주의 전면발전기, 도로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사업의 성과를 강조하고 도로의 안전성·편리성·현대성·문화성 보장 및 선진기술 도입 문제 해설

  * △10.21. 과학기술전당 △국토환경보호·도시경영·설계·산업미술·과학교육부문 일군 등 참가

- 일꾼들의 국토관리정책에 대한 책임의식·실천력으로 더욱 분발할 것을 강조

o 북한은 국토관리총동원사업을 통해 생태환경을 개선·보호하고 자연재해방지 능력을 강화하고자 노력

- 제9차 당대회 시 "도시경영사업, 재해위기 대응, 법·감독기관들의 생태보호사업에 대한 감시·통제 강화" 등 국토관리와 생태환경보호 관련 제반 과업 제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19. 노동, 10.22. 노동·중통)

o "나라의 모든 산과 강을 보배산, 보배강으로"(10.19. 노동)

- "최근 각지에서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이 힘있게 벌어짐", "장석쌓기 등 강하천정리공사, 제방대보수와 강바닥파기, 산불막이선과 사방야계구조물 등 설치·보수공사", "많은 지역들에서 국토관리사업에 적극적으로 발동된 결과 나라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방지능력을 강화하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
- "국토관리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항상 명심하고 여기에 우선적으로 힘을 집중하는 자세와 립장을 변함없이 견지", "당의 국토관리정책을 받드는 해당 지역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실천력에서의 차이로부터 산생된 결과"
- "길주군, 수십 리 구간의 하천을 정리하여 지역의 면모를 일신하고 농경지를 큰물로부터 보호", "정평군, 사방야계공사의 질보장에 힘을 넣어", "삭주군, 가을철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 확보"

o “2026년 가을철 국토환경보호부문 미학토론회 진행”(10.22. 노동·중통)

- “21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 “국토환경보호, 도시경영, 설계, 산업미술, 과학교육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군, 과학자 등이 참가”
- “《사회주의전면적발전기와 도로경관》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건설의 대번영기, 나라의 얼굴이며 문화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인 도로의 면모가 일신”, “모든 도로들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건설하고 개변시켜나가는데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피력”

일본 정계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공물 봉납 관련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유가족협회' 대변인 담화

1 개 요

o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유가족협회'* 대변인은 일본 정계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공물 봉납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10.20. 중통)

*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유가족협회'는 2003년 11월 결성된 단체로, 강제징용·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

- 동 협회는 과거 △도쿄 대공습 계기 조선인 희생자 배상 촉구('25.3.) △군마현 조선인 강제연행 추도비 철거 규탄('24.2.) 관련 담화를 발표

o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공물 봉납을 최근의 '신군국주의화' 비난과 연계해 의미부여

- 다카이치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을 극우정치, "군국주의의 발로"로 비난하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20. 중통)

o "얼마 전 일본의 우익보수정객들이 가을철대제를 계기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공물봉납과 참배놀음", "현 집권자, 이번 가을철대제 기간에 또다시 공물을 봉납"

– "이는 침략역사에 대한 전면부정인 동시에 《대동아공영권》의 헛된 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위험천만한 군국주의 광증의 발로"

– "일본반동들이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조성》까지 운운하며 신군국주의 광풍을 더욱 세차게 몰아오려 함."

o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참배하고 있는 것은 일제의 침략전쟁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며 국제적 정의와 평화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

– "만고죄악에 대한 성근한 사죄와 배상으로 정의와 평화를 바라는 국제사회 앞에 나서야 할 것"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6》 개막

1 개 요

o 북한은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6》를 개최(10.20. 노동·중통)

* 개막식 △일시·장소 : 10.19. 과학기술전당
△주제 :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새시대와 정보화》
△참석 : 김승두(당비서), 전승국(부총리), 주용일(정보산업상) 등

o 본 행사는 "당 제9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올해의 정보기술 성과, 경험을 널리 소개 선전하고 교류, 보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

* △(출품) 1,400여 건의 성과 및 제품 △(경연) 인공지능기술제품, 로봇, 프로그램 작성, 디지털TV, 스마트폰 분야 △(강의) 과학기술발표회, 세계적인 정보기술, 인공지능 산업, 로봇 산업의 발전 추세 등

- 주용일(정보산업상) 개막사,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정보화, 지능화 실현의 본보기를 창조"하며,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열기를 더욱 고조"할 것 강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20. 노동·중통)

o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6》이 개막"

-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새시대와 정보화》의 주제로 열린 전람회는 당 제9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올해의 투쟁과정에 이룩된 정보기술성과와 경험들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교류, 보급함으로써 국가부흥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
- "전람회에는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에서 앞장선 중앙과 지방의 450여 개의 단위에서 내놓은 1,400여 건의 정보화성과들과 첨단정보기술제품들이 실물과 모형, 가동형전시물로 출품"
- "이 기간 인공지능 기술제품 경연, 로봇 경연, 프로그램 작성 경연과 수자식 TV, 지능형 손전화기를 비롯한 정보기술제품 생산단위들의 경연 진행"
- "과학기술발표회, 세계적인 정보기술, 인공지능산업, 로보트산업의 발전추세와 관련한 강의"

o "전람회개막식이 19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승두 동지와 내각부총리 전승국 동지, 관계부문, 출품단위 일군, 근로자들이 참가"

- “정보산업상 주용일 동지 개막사”, “연설자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운 전망계획 기간 도달하여야 할 정보산업 발전의 목표와 단계별 과업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
- “이번 전람회를 계기로 전면적 발전의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정보화, 지능화 실현의 본보기를 창조”
-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열기를 더욱 고조시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정보화성과들과 첨단정보기술제품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

교육부문 궐기대회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평양, 각 도·직할시에서 진행된 교육부문 궐기대회 진행(10.20., 10.23. 노동·중통)

-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80년 축하 방문에서 제시한 "새시대 교육대강령" 과업 관철, 세계적 교육강국·과학기술강국·인재강국 건설 강조

o 부문별 궐기대회, 궐기모임 개최로 교육발전 과업 이행 분위기 조성

* "새시대 교육대강령실현에 총분기하여 인재육성, 과학연구사업에서 뚜렷한 결실을 안아오자-각지 대학, 학교들에서 궐기모임 진행"(10.26. 노동)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20., 10.23. 노동·중통)

o "위대한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혁명인재육성과 자랑찬 과학연구성과로 담보해나가자- 10.19. 평양시 교육부문 궐기대회 진행"(10.20. 노동)

- (보고자) "총비서 연설, 새시대 교육혁명수행의 진로 명시한 교육대강령", "보통교육부문에서 선택과목제 확대실시, 제2차 의무교육강령 철저 집행, 대학들에서 학부·학과 보강·정리", "교원양성부문대학 역할 제고, 교원재교육체계 정비보강, 교육수준의 지역적차이 결정적 축소",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국가 존엄·번영 받쳐주는 것은 제2의 사명", "기초과학, 응용과학 다같이 발전", "세계적인 교육강국·과학기술강국·인재강국으로"

o "비상한 용기와 분투로 새시대 사회주의교육의 위대한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 10.21.~22. 각 도(직할시) 교육부문 궐기대회 진행"(10.23. 노동)

- (평남·평북·황남) "교육 내용·방법에서 새로운 것을 부단히 연구도입", "교육단위들을 본보기수준으로", "교육부문 전용망·국가교육체계 구축"
- (황북·자강·강원) "정치사상교육내용을 김정은 동지 혁명사상으로 일관", "금속, 화학, 석탄공업과 농산, 축산부문 등의 선택과목교육을 줄 수 있는 유능한 교원대렬, 교구·기재 갖춘 교육환경 조성, 도농 수준차이 줄여"
- (함남·함북·양강) "우리식의 철생산방법 완성, 공장·기업소 생산활성화에 이바지", "교육지원열풍, 교원우대 기풍 발휘"
- (남포·나선·개성시) "우리식의 주체적 생산공정 확립, 원료·자재·설비 국산화하여 자립적 경제구조 완비하는데 제기되는 문제 우선적 해결"

박정천 고문·김여정 부장, '국경 요새화' 현장 시찰 및 입장표명

1 개 요

o 박정천 국방성 고문과 김여정 당 부장은 10.21. '남부국경 요새화' 현장을 시찰하고 관련 입장표명(10.21. 중통)

* 동행 : 리일환(당 비서), 총참모부 주요지휘관

** 경과 : 10.19. 김여정 담화, 우리군 경고방송·사격 비난 → 10.20. 우리 합참의장, 전방 시찰("단호 대응", "DMZ 주도권 강화 작전 시행") → 10.21. 박정천·김여정 현지시찰 및 입장표명

o 박정천·김여정은 '국경 요새화' 공사 지속 의지를 피력하며 군사대응 위협

- 북한군의 MDL 월선 사실을 부인하며 '정상적인 국경강화 사업'으로 주장
- '국경 영구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 '성업·대업'임을 강조하며 국경작업 정당화
-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해올 때에는 즉시 반격", "화력조직 필요", "새로운 화력 구분대 사격진지 차지" 등 군사적 대응조치도 언급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21. 중통)

o "국방성 고문 박정천 원수는 10월 20일 남부국경요새화 공사현장 현지시찰"

o "(박정천 입장표명) "지금 불량배무리들은 우리 군대가 정상적인 국경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단물 공사를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 함."

- "우리 군인들의 〈월선〉이라는것은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정세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보려는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억지주장"
- "적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인들을 향해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해올 때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함."
- "박정천 원수는 적들이 두려워하지 않을수 없는 화력조직이 필요한 때 강조"

o "(김여정 언급) 우리 군사지도부는 저 불량배무리들이 우리의 새로운 화력 구분대들이 사격진지를 차지한것을 알게 만들어야 함."

- "국가수반은 령토주권을 행사하는데서 단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하며 적대 국가와의 국경선을 가장 영구적인 선으로 만들데 대하여 명령"
- "이는 아주 오래도록 잘못 씌여온 력사에 종지부를 찍는 〈성업〉이고 〈대업〉"

김여정 부장, '국경요새화' 공사 현장 시찰 관련 추가 담화

1 개 요

o 김여정 부장은 '국경요새화' 현장 시찰* 관련 내용 정정·보완 담화(10.21. 19시 중통)

* 10.21.「국방성 고문 박정천 원수 남부 국경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현지 시찰」 후속

- 앞서「중통」이 보도한 현장 시찰 시점을 10.20. 아닌 10.21. 새벽으로 정정
- '국경요새화'는 DMZ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 아울러, "새로운 진지", "10월 중 대한국 심리전확성기 가동상태" 등 예고

o 금번 발표는 △'국경요새화' 추진 의지 피력 △'대남 확성기' 등 북한의 대응을 정당하기 위한 차원의 의도로 풀이됨.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21. 중통)

o "전날이 아닌 바로 오늘 21일 새벽에 국경의 여러 곳을 다녀왔음."

o "국가수반은 세상에서 가장 너절하고 추악한 적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끔찍한 비극", "그 국경선은 영원히 넘지 못할 영구적인 선이 되여야 한다고 강조", "적의 끈질긴 위협속에서도 중대한 대업", "곧 평안하고 위대한 력사가 시작", "국경이 영구화되면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의심할 바 없이 해소될 것"

o "오늘도 적어도 두 곳에서 확성기 경고도발방송과 경고사격", "전술적 사냥조들은 새로운 진지들을 차지하고 있으며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 "가장 정당한 조치, 적합한 대응"

o "오늘과 같은 경우 적을 향해 마주 경고사격을 한다고 치자. 국경의 정세는 상상할 수 없이 악화", "우리는 높은 자제력을 가지고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

o "적의 경고사격도발이 경고성을 넘어 실제적인 우리의 령토안전, 장병들의 신변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우리 국경장병들은 리성을 잃은 무장깡패들을 사정없이 처치할 것"

국제경기 대회 성과 선전

1 개 요

o 북한은 국제경기 대회 참가 및 성과 연일 보도(10.21.-22., 10.24.-25. 노동·중통)

- (탁구) 제5차 아이치-나고야 장애인아시안게임 메달 획득

  * △은메달 : 전주현(남자 단식) △동메달 : 전주현·김영록(남자 복식)

- (핸드볼) 2026 국제핸드볼연맹 국가컵 여자경기(아시아 1A 지역) 우승

  * 아시아 1A 지역 국가 : 북한, 홍콩, 베트남, 대만, 마카오, 몽골

- (축구) FIFA 2026 U-17 여자 월드컵경기대회 16강 진출

  * 16강 경기 일정(10.29.) : 북한 vs 모로코

o 북한은 매년 국제체육경기 대회 성과를 노동신문 등을 통해 선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체제 결속력 제고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21.-22., 10.24.-25. 노동·중통)

o “제5차 아시아장애자경기대회 탁구경기에서 은메달 쟁취”(10.21. 노동·중통), “동메달 쟁취”(10.24. 노동·중통)

– “우리나라의 전주현선수가 탁구 남자단식경기(6부류)에서 2위”, “전주현, 김영록 선수들이 탁구 남자복식경기(14부류)에서 3위”

o “2026 국제송구연맹 국가컵여자경기대회 아시아 1A지역 경기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10.22. 노동·중통)

– “결승경기에 출전한 우리 여자송구선수들은 중국 홍콩팀을 25:22로 이기고 컵과 금메달 쟁취”

o “국제축구연맹 2026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 16강자전 경기에 진출”(10.25. 노동·중통)

– “2026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가 마로끄에서 진행”, “우리나라 팀은 조별 연맹전 경기에서 종합점수 6점을 획득하고 조에서 1위의 성적으로 16강자전 경기에 진출”

김여정 부장, 김병주 의원 SNS 게시글 비난

1 개 요

o 김여정 부장은 '대남 확성기' 관련 김병주 의원 SNS 게시글 비난(10.22. 중통)

* 김병주 의원(청와대국방특별보좌관), "김여정 부장, 지뢰를 묻은 손으로 적대적 확성기를 잡지 마라", "'자작극', 확성기 위협, 적반하장", "북한 경거망동, 즉각 응징"(10.21. 21시경)

- "남의 집 울타리를 세우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며, 김 의원 등 정부 비난
- '국경요새화'의 "군사적 충돌 위험" 완화, '대남 확성기' 등을 다시 주장
- "객기", "실수", "언동 바로" 등을 거론, 의도치 않은 사태의 확산, 충돌 등 경계

o 금번 발표는 △북한의 '국경요새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 △DMZ의 '우발적 충돌'과 이로 인한 사업 차질을 가능성을 의식한데 따른 것으로 보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22. 중통)

o "한국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자가 21일 주제넘은 반응",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의 집울바자(울타리)를 세우는 일에도 철면피하게 간섭",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쓰자면 총 한방 쏘지 않은 사람들에게 총질을 해대며 도발을 한다고 떠드는 것을 보고 적반하장이라 해야 할 것"

o "위임에 따라 언명함",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령내에서 우리의 목적에 따르는 국경영구화 공사는 성과적으로 계속될 것", "국경이 요새화되면 조한 사이의 군사적 충돌위험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

o "만약 병적인 객기로 순간이나마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실수》라도 범한다면 그때에는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할 것", "새로운 대응수단들은 임무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대한국 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상태에 들어가게 됨."

o "계속 잴잴거리고 트집질과 억지펴기로 나간다면 현 집권당국은 가장 참담하고 곤혹스러운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 "사태파악을 잘하고 언동을 바로할 것을 다시금 경고"

시진핑 주석, 중국 건국일 77주년 김정은 축전에 답전

1 개 요

o 시진핑 주석은 10.20. 중국 건국일(10.1.) 계기 김정은 위원장 축전(10.1.)에 대한 답전을 발송(10.22. 노동·중통)

o 6월 북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하고 북중관계 발전을 위한 중국의 의지 표출

- 특히, △정치적인 호상신뢰 공고화 △실무협조 확대발전 △밀접한 의사소통·조율 △지역·세계의 평화·발전에 공헌 등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용의 언급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22. 노동·중통)

o “중화인민공화국창건 77돐에 진정어린 축전을 보내준 데 충심으로 되는 사의”

- “중조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으며 세대를 이어 친선적이고 운명을 함께 하면서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은 시종 중조관계의 뚜렷한 특징”
- “올해 6월 나는 조선에 대한 국가방문을 진행하여 총비서 동지와 다시금 상봉하였으며 중조관계의 심화발전과 관련하여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룩하고 전략적 인도를 진일보 강화”
-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빛내이고 정치적인 호상신뢰를 공고히 하며 실무협조를 확대발전시키고 의사소통과 조율을 밀접히 진행하여 두 나라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음.”

유제품 보장 육아정책 선전

1 개 요

o 북한은 육아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제품 보장 정책의 당위성과 성과를 선전(10.23. 노동)

* △당 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21.6.15.-18.), 육아정책 개선 강화 문제 상정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22.2.6.-7.), 어린이 영양식품 공급 등 규정한 『육아법』 채택

- △목장 신규 건설 및 확장 △젖소·염소 사육 두수 및 원유 생산량 증가 △어린이 보건 상태 개선 등 주장. 다만, 어린이 키·몸무게 등 증가 관련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는 미언급

o 김정은 위원장을 미래 세대를 중시하는 "절세위인"으로 칭송하며 "김정은식 애민정책" 부각

- 모든 어린이에게 유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막대*함에도 불구, 당·국가의 최중대 정책으로 제시한 김 위원장의 결단력 강조

* "젖제품소요량,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의 부족되는 양, 젖가루를 수입하여 보장해야", "그에 필요한 자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것"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23. 노동)

o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억만자루의 품이 든다 해도 - 우리당 육아정책의 완벽한 실행에 깃든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을 새겨보며"(10.23. 노동)

- "한 명의 어린이에게 차례지는 영양식품은 수십가지", "1년 365일 하루도 번짐없이 와닿는 젖제품, 7개월부터 6살까지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젖제품의 량은 무려 수백 kg", "관련 공정 전부 국가 부담"
- "젖제품소요량, 젖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6월부터 9월까지는 얼마든지 보장,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의 부족되는 량은 젖가루를 수입하여 보장", "필요한 자금 막대", "총비서 동지,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 것,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 최고의 숙원"
- "당 제8기기간, 백수십개에 달하는 염소, 젖소목장, 분장 새로 건설, 능력 확장", "젖소의 마리수는 1.4배, 염소마리수는 2배 이상 늘어나고 원료 젖생산량도 1.4배 이상으로 장성", "아이들의 키와 몸무게가 늘어난 것을 비롯하여 영양상태 전반적으로 개선"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 대회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10.22.-23.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 대회를 진행(10.24. 노동·중통)

* 주석단 : 김정은 위원장(지도), 박정천(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성기(국방상), 유광우(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길(총참모장), 군정지휘관, 모범 중대장

** 식순 : 국가주악 → 김정은 위원장 연설 → 보고(국방상) → 영상물 시청 → 표창수여식

- 제9차 당대회 이후 첫 '군사분야 대회'로 앞서 '91년과 '99년 개최사례

*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통합 대회는 '73년, '85년, '95년, '13년, '19년 5회 개최

o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중대 강화'를 통한 '강군 건설' 강조

- "군대강화에서 중심고리는 바로 중대", "전군의 중대들이 사상정신적 정화, 군사기술적 정예화, 완벽한 전투역량으로 다져지면 군대의 강세는 증폭" 언급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24. 노동·중통)

o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가 10월 22일과 23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

- "당 제9차대회 이후 전군적인 첫 회합", "모든 중대를 당의 사상과 위업을 결사옹위하는 최정예전투대오, 다병종화된 만능중대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전군의 중대장들을 총궐기"

o (김 위원장 연설) "군대강화에서 중심고리는 바로 중대", "중대중시, 중대강화에 기초한 강군건설 노선이야말로 전군의 면모를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일신시킬 수 있는 최상의 선택"

- "전군의 중대들이 사상정신적으로 순결하게 정화되고 군사기술적으로 강력히 정예화되며 정규화적 면모에서 완벽한 전투역량으로 다져지면 우리 군대의 강세는 비할 바 없이 증폭될 것 확언"

- "중대장들이 지휘관이기 전에 중대 군인들의 친형이 되고 진정한 전우가 되여 중대를 병사들의 정든 집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 강조"

o (국방상 보고) "김정은 위원장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중대의 전투력을 억척으로 다지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

김정은 위원장, 중국 단둥 방문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10.24. 중국인민지원군 6.25전쟁 참전('50.10.25.) 관련 중국 단둥을 방문(10.25. 노동·중통)

* 동행 : 조용원(당 비서), 최선희(외무상), 리일환(당 비서), 김성남(당 비서), 김덕훈(내각 제1부총리), 김여정(총무부장) 등

** (중) 왕후닝(정협 주석), 왕이(외교부장), 류하이싱(대외연락부장), 마자오쉬(외교부 상무부부장) 등 참석

- 김정은의 6번째 방중으로 '25년 9월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 1년 1개월 만
- 이례적으로 북중 정상회담 없이 당일 일정으로 방문

* 일정 : 압록강대교 통해 단둥 도착 → 항미원조기념탑에 꽃바구니 진정 → 항미원조기념관 참관 → 왕후닝 정협 주석과 담화·연회 → 단둥 버스공장 참관 → 신압록강대교 통해 귀북

o 중국인민지원군 6.25전쟁 참전을 기념하며 북중 혈맹 역사를 과시하고 북중간 협력 확대 의지를 표출

- 김 위원장 △항미원조기념탑 참배 및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 계승 강조 △신압록강대교가 "두 나라를 잇고 우리의 마음도 더 굳게 잇는 력사적인 사명 수행" 언급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25. 노동·중통)

o "김정은 위원장,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6돐에 즈음하여 10월 24일 단둥 방문"

- (항미원조기념관) "꽃바구니가 항미원조기념탑에 진정", "《항미원조기념관》은 불패의 조중친선에 대한 고귀한 피의 검증", "피로써 맺어진 불패의 조중친선을 영원히 굳건히 계승", "사진문헌기념판을 선물"
- (왕후닝과 담화·연회)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의 출병지에서 경건히 추억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 "오늘날 중국의 높은 국제적 권위와 존엄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영도 따라 분투하고 투쟁하여 쟁취한 응당한 결과", "습근평 동지의 특별지시에 따라 연회를 마련"
- (단둥 버스공장) "공장의 여러 곳을 참관", "공장이 보다 큰 성공을 이룩하기를 기원"
- (신압록강대교) "다리가 두 나라를 잇고 우리의 마음도 더 굳게 잇는 역사적인 사명을 의심할 바 없이 정확히 수행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 "왕호녕 동지와 조중압록강다리에서 기념촬영"

UN 주재 북한 상임대표, '지뢰폭발사건' 관련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 서한

1 개 요

o 김성 UN 주재 북한 상임대표는 한국이 북한에 '지뢰폭발사건'의 책임을 묻는 조치에 대해 반발하며 10.25. UN 안보리 의장에 서한 발송(10.26. 중통)

- 지뢰폭발에 대해 "북한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한국이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 이는 정세악화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강조
- 한편, 남부국경요새화는 "외부 침략 위협으로부터 영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자 "UN헌장·국제법에 부합하는 주권행사"로 주장
- 우리 군의 대응을 "UN헌장 위반"으로 규정, 우리 군이 "직접적 도발행위 감행 시 북한은 합법적 자위권 행사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

o 우리 외교부가 10.22. UN 안보리 의장에 보낸 서한에 대한 맞대응 성격

- 우리 서한에는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매설한 지뢰로 인해 폭발 발생", "평양에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 "신뢰회복을 위한 대화 촉구" 포함

o 북한은 목함지뢰·천안함 사건 당시에도 우리의 UN 서한 발송에 대응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으며 대북제재·한미연합훈련 등 계기에도 서한 발송

* △'15년 목함지뢰 관련 UN에 한국 '15.8.18. 서한 → 북한 '15.8.21. 서한
△'10년 천안함 관련 한국 '10.6.4. 서한 → 북한 '10.6.8. 서한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26. 중통)

o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는 한국이 9.21. 일어난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의 책임을 무근거하게 조선에 전가하는 도발행위 관련, 25일 유엔 안보리 의장에 편지 발송"

- "한국, 우리 군인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사격행위 자행", "이는 국제관계에서 임의의 나라의 영토완정을 반대하여 힘의 사용이나 위협을 삼가야 한다고 규제한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에 대한 엄중한 위반"
-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 영토를 1mm라도 침범하거나 직접적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조선은 유엔헌장 제51조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 가짐을 상기"

제18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개막

1 개 요

o 북한은 <공동의 발전과 번영>이라는 주제로 제18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개최(10.27. 노동·중통)

* 개막식 △일시·장소 : 10.26. 청년중앙회관 △참석 : 윤정호(대외경제상) 및 관계 부문, 출품 단위 일꾼들

** 식순 : 개막사(윤정호) → 개막 선언 → 전람회장 관람

o 중국, 몽골, 방글라데시, 태국 등 130여 개 국가의 기업체가 참가, 전자·기계·건재·의학·경공업·식료일용 등 분야의 1,000여 종, 1만여 점 제품이 출품

- 윤정호 대외경제상, "평등·호혜 원칙 아래 여러나라들과 대외경제관계를 확대, 양자·다자적 협조를 발전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일관된 대외경제정책임"을 강조

o 평양 국제상품전람회는 매년 봄철(5월)·가을철(9~11월) 연 2회 개최하는 북한 최대 국제무역박람회, 이번 제18차 가을철 전람회는 코로나19 종식 후 세 번째

* 제15차 가을철 전람회('19.9.) 후 코로나로 4년간 미개최('20~'23), 제16차('24.11.)부터 재개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27. 노동·중통)

o "제18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가 개막"

- "《공동의 발전과 번영》이라는 주제"
-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백운산종합식료공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조선유리수출입회사 비롯한 우리 나라와 중국, 몽골, 방글라데슈, 타이의 130여개 기업체와 회사들 참가"
-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전자, 기계, 건재, 의학, 경공업, 식료일용 등 1,000여 종에 1만여 점의 제품이 출품"

o "개막식이 26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 관계 부문, 출품단위 일군들이 참가", "윤정호 동지가 개막사"

- "출품단위들사이에 제품 개발과 생산에서 달성한 과학기술성과들 공유 이전"
- "우수한 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 나라의 대외무역 확대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계기"
-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여러 나라와 지역들과 대외경제관계를 확대, 쌍무적 및 다무적협조를 계속 발전", "당과 정부의 일관한 대외경제정책"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10.27.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10.28. 노동·중통)

* 동행 : 박정천(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성기(국방상), 리영길(총참모장), 유광우(총정치국 제1부국장), 군종사령관, 대연합부대장 등

** 제3차 중대장 대회(10.22.-23.) 참석(지도)에 이어 기념사진도 촬영

o 김 위원장은 군 기층단위인 중대장들을 치하하고, 전투력 강화 및 사상무장 주문

- "중대장들의 혁혁한 공적을 높이 평가", "중대장들의 독보적 역할은 막중"
- "중대장들의 제1의 혁명임무는 싸움준비 완성이며 실행방도는 훈련혁명", "자기 중대를 견결한 혁명신념이 차넘치고 일당백의 강병대오로 만들 것" 강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28. 노동·중통)

o "김정은 위원장은 10월 27일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 대회 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음."

o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무력의 기본전투단위를 책임지고 열렬한 충의심과 혁명적인 복무정신, 헌신의 노력으로 무수한 군공과 위훈창조의 견인기가 되고있는 중대장들의 혁혁한 공적을 다시금 높이 평가"

- "우리가 목적한 강군건설에서 감당해야 할 중대장들의 독보적 역할은 지휘관 서열에서의 순위나 영장의 별로 규정할 수 없는 참으로 막중"
- "중대강화와 더불어 전군을 강화하고 새시대 군사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역사적 과업을 다름 아닌 중대장들을 믿고 결행하려는 당중앙의 결심과 의지 확고"

o 김정은 위원장, "중대장들의 제1의 혁명임무는 만반의 임전태세를 갖추기 위한 싸움준비완성이며 그 실행방도는 강도높은 훈련혁명" 언급

- "자기 중대를 견결한 혁명신념과 애국정신이 차넘치고 무적의 전투력을 지닌 일당백의 강병대오로 만드는 성과로 검증받아야 함."

공장·기업소 현대화를 통한 제품 질 제고 강조

1 개 요

o 북한은 공장·기업소 현대화의 기본 목적이 '질 제고'임을 강조(10.28. 노동)

- 당 차원에서 기업의 생산공정 현대화*, 선진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강조

  * 북한은 '최량화, 최적화의 원칙'에서 생산물의 질적 제고와 양적 성장을 도모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현대화의 필요성 강조

- 현재 많은 공장·기업소에서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일군 작전도(추진계획) 확인 △설비 개선 △새로운 생산공정 도입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중

o 다만, 현대화 사업 추진 단위에 따라 제품의 품질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언급

- 그 원인으로 현대화를 대하는 일군들의 인식 차이를 지적, 현대화의 목적이 단순한 설비 교체나 외형 개선이 아닌 생산물의 '질 제고'에 있음을 환기

  * 안주절연물공장, 절연물 생산 시 "자재의 국산화와 질 제고 사업에서 진일보 이룩"

- 제품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일군들의 기술·기능 수준 향상 △기업소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전문 과학 연구 기관과의 협업 필요성 제기

  * 평성학생교복공장, "현대화 과정을 기능공 양성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생산공정을 일신"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28. 노동)

o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 결과", "첫째도 둘째도 질 높은 제품의 생산"

- "우리 당은 모든 기업체들이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고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하여 일관하게 강조", "현대화는 최량화, 최적화의 원칙에서 생산물의 질을 높이고 양적 장성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
- "인공지능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제품의 질과 생산성 제고, 원가 저하 등 생산과 경영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현대화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

o "어느 단위에 가나 현대화를 위한 일군들의 작전도를 볼 수 있고, 설비들을 갱신하고 새로운 생산공정들을 갖추어놓기 위한 사업"

- "하지만 그 결과는 각이하게 나타나", "제품의 질 보장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단위도 없지 않음."

- “현대화를 대하는 일군들의 관점과 입장이 차이나기 때문”, “공장, 기업소의 현대화도 마땅히 인민들이 반기고 환호하는 질 높은 제품을 내놓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 “질 제고를 떠난 현대화,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지 못하는 현대화는 아무리 많은 품을 들여 해놓았다고 해도 소용이 없음.”
- “현대화 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 “현대화가 질 제고에로 이어지고 있는가”, “경제 부문의 일군들은 이 물음 앞에 자신을 세워보며 …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로 철저히 지향”
- “안주절연물공장은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다른 단위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단위들 중의 하나”,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제품의 질에 대한 요구성을 부단히 높이면서 현대화 사업을 강력히 추진”

o “현대화 사업을 질 제고에로 지향시키는 데서 중요한 것”, “현대화 과정을 생산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만드는 것”

- “평성학생교복공장에서는 설비 현대화에 큰 힘을 넣어 학생교복 생산 공정을 일신”, “일군들이 수백 대의 수자식 재봉기와 기타 최신식 설비들을 갖추어놓는 현대화 과정을 기능공 양성 사업과 밀접히 결부”
- “단위의 구체적 실정과 세계적 추세에 맞게 목표를 바로 정하고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는 문제, 전문 과학연구 기관들과의 협동을 강화하는 문제 등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

o “기본은 질제고를 떠난 현대화란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

- “경제전선의 모든 일군들은 높은 창조적 안목과 실천력, 책임성을 지니고 현대화 사업이 곧 제품의 질 제고에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

국제경기 대회 성과 선전

1 개 요

o 북한은 국제경기 대회 참가 및 성과 지속 선전(10.28.-11.1. 노동·중통)

- (축구) FIFA U-17 여자 월드컵 경기(모로코, 10.17.-11.7.) 8강전 진출

  * 8강전 : 11.2. 북한 vs 미국(예정)

- (역도) 2026 국제역도연맹 세계선수권대회(중국, 10.27.-11.8.) 결과

  * △금메달 16개 : 리성금(3개), 박인성(1개), 박명진(2개), 박별(3개), 오광옥(3개), 김소현(1개) 리룡현(3개)
    △은메달 5개 : 방은철(3개), 리원주(2개) △동메달 4개 : 박인성(2개), 김소현(1개), 리원주(1개)

o 대내적으로 △전국공개탁구경기(11.8.-13.) △공화국선수권대회(9.22.-10.30.) 등 진행

o 북한은 국제경기 성과 선전을 통해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국내 각종 체육대회를 통해 '체육의 대중화·생활화' 적극 장려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28.-11.1. 노동·중통)

o 2026 국제력기연맹 세계선수권대회 성과 소식

- "리성금 선수는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 종합에서 각각 1위, 3개의 금메달", "박인성 선수는 추켜올리기에서 금메달, 끌어올리기와 종합에서 각각 동메달", "방은철 선수는 끌어올리기, 추켜올리기, 종합에서 은메달"(10.28. 노동·중통)
- "박명진 선수는 추켜올리기와 종합에서 각각 1위, 2개의 금메달"(10.29. 노동·중통)
- "박별, 오광옥 선수들이 2026년 국제력기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 "김소현 선수는 추켜올리기에서 1위, 종합에서 3위", "리원주 선수는 추켜올리기와 종합에서 각각 2위, 끌어올리기에서 3위"(10.31. 노동·중통)
- "리룡현 선수는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 종합에서 각각 1위, 3개의 금메달"(11.1. 노동·중통)

o "2026년 전국공개탁구경기가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청춘거리 탁구경기관에서 진행"(10.28. 노동·중통), "공화국선수권대회 폐막식이 30일 청춘거리 농구경기관에서 진행"(10.31. 노동·중통)

o "국제축구연맹 2026년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 준준결승경기에 진출"(10.30. 노동·중통)

- "경기시간 6분경 10번 유정향 선수가 첫꼴을 넣은데 이어 33분경과 41분경, 43분경 련속 득점에 성공", "우리 선수들은 마로끄팀을 6:0으로 이기고 준준결승경기에 진출"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1 개 요

o 북한은 10.29. 김정은 위원장 참석 하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를 개최하고 무기체계 위력시위 진행(10.30. 노동·중통)

* 참석 : 리설주, 김정은 위원장 딸, 박정천(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성기(국방상), 조춘룡(당 비서), 리병철(군수정책담당 총고문), 사·여단장 이상 전 지휘관, 군사교육·과학연구기관 등

** 식순 : 국가주악 → 기념행사발언(조춘룡)→ 김정은 위원장 연설 → 참관 → 중요무기 위력시위

- 무인기 주제 최초의 전시회로 다종의 자폭·정찰·공격형 무인기를 공개
- 위력시위로 △자폭·공격형 무인기 △전술순항비행탄 △600mm 방사포 화력 과시

o 김정은 위원장은 별도 대외메시지 없이 "무인기 분야에서의 절대적 우세" 강조

- "현대전에 따르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 "무인·인공지능분야에서 결실" 주문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30. 노동·중통)

o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가 10월 29일 성대히 진행"

- "전시회장에는 각이한 유형의 전략 및 작전 전술급 다목적무인기들과 자폭무인공격기들을 비롯하여 무인항공 기술분야의 최신 성과들이 전시"

o "김정은 위원장은 무인기 분야에서의 절대적 우세를 목적하는 것은 현대전의 변화 양상에 따르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무인항공기술력의 급속한 확대강화를 위한 우리 당의 국방발전전략과 국가적인 중대조치들을 발표"

- "무인무장장비 분야의 핵심기술 고도화와 인공지능화 및 작전능력 고도화를 계속 틀어쥐고 나가야 함."
- "평화와 힘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 힘이 곧 평화이고 평화는 힘으로만 담보, 이것은 오늘의 분주한 세계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상식"

o "전시회를 기념하여 각종 무인기들과 중요무기체계들의 위력시위"

- "각이한 전술자폭 무인공격기들과 전술순항비행탄사격, 다목적 무인기의 공습진행", "일명 《저격수》라고 불리우는 600㎜대구경방사포의 전투사격이 처음 군중 앞 공개"

한미연합공중훈련「프리덤 플래그」관련 국방성 대변인 담화

1 개 요

o 국방성 대변인은 하반기 한미연합공중훈련인 「2026년 2차 Freedom Flag (프리덤 플래그)」(10.26.-11.6.)에 대한 비난 담화를 발표(10.30. 중통, 10.31. 노동)

- 「프리덤플래그」와 함께 △미국 해병대의 '다영역 정찰훈련' 한국 실시 (10.21.-11.6.) △최근 DMZ 상황('국경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 등과 비난 연계

o 한반도 긴장조성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며 '철저히 힘으로 억제' 강조

- "지역 안전환경이 위태해지고 있는 근원이 미국과 한국에 있음."
- "가장 명백한 대응의지 적용", "적수국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 행동" 엄포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30. 중통, 10.31. 노동)

o "최근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준비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적수국들의 도발적 광태로 말미암아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적 긴장 도수는 전례없이 고조"

o "미국과 한국 군부 호전광들은 26일부터 공중무력을 동원하여 우리 국가를 겨냥한 도발적 성격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를 벌려놓음."

- "그들이 강변하는 훈련의 《방어적 성격》과 실지 추구하는 군사적 목적의 차이를 정확히 투시"

o "미해병대 제3해병 원정군이 하와이에서 진행되던 다영역 정찰훈련을 처음으로 한국에서 벌려놓음.", "한국군부깡패들이 조한국경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문전에서 적극화되는 적수국들의 군사적 움직임"

o "지역의 안전환경이 위태해지고 있는 근원이 군사동맹체제의 팽창과 군사연습의 강행을 통하여 힘의 우위를 추구하는 미국과 한국에 있다는 것 명백히 입증"

o "우리 무력은 철저히 힘으로 위협을 억제할 것이며 오직 적수국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 "가장 명백한 대결의사에는 가장 명백한 대응의지가 적용"

UN 북한인권 논의 관련 김성 UN 대표 담화

1 개 요

o 김성 UN 주재 북한 상임대표는 10.29. 제81차 UN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 논의와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10.30. 중통)

* 10.27. UN총회 3위원회 회의 △엘리자베스 살몬(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 및 개선 촉구 △한·일·EU 등 북한 인권 우려 △중·러·벨라루스는 보고서 및 인권감시체계 비판

- 10월 초 UN 사무총장의 북한인권보고서 UN총회 제출 관련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10.3.) 이후 약 3주 만에 UN 인권문제 관련 입장 표명

* 김성 UN 대표 담화는 NPT 평가회의('26.5.7.) 이후 약 5개월만

o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인권침해가 아닌 정상적 국가활동임을 강변

- 특별보고관 제도에 대해 "미국과 추종세력의 반공화국 적대시 도구"라고 주장

- 특별보고관의 '사형제', '사회통제' 지적 등에 대해 '사회기강 확립, 법기관의 기능·역할 강화를 통한 인권 보장'이라고 강변

* "사회 기강 확립, 법기관 기능·역할 강화는 사회적 안전 보장, 인권담보 필수 공정", "특별보고자가 초보적·보편적 국가관리의 합법칙적 과정조차 의도적으로 외면"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30. 중통)

o "유엔총회 제81차 회의 3위원회에서 진행된 조선인권상황 《특별보고자》 보고서 토의 시 《특별보고자》와 한·일을 비롯한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은 우리 국가의 인권보장정책과 실상을 모독중상하는 정치적 도발행위를 감행"

- "유엔을 불순한 정치목적 실현에 남용하는 특정 세력의 강권·전횡 묵인, 미국과 추종세력의 반공화국 적대시도구로 존속한 《특별보고자》 제도가 대표 사례"

- "세계적 보건위기 기간 과학적·선제적 비상방역조치를 《생명권 침해》로 매도", "오늘날 생명권에 대한 가장 엄중한 위협은 미국과 추종세력의 전쟁행위"

- "국권을 떠난 인권이란 지상공론에 불과", "인권은 절대불가침 신성영역"

스위스 외교부장관 방북

1 개 요

o 이그나치오 카시스(Ignazio Cassis) 스위스 외교부장관은 10.29.-30. 북한을 방문(10.30.-31. 노동·중통)

* 스위스 외교부장관 방북은 2003년 칼미-레이(Calmy-Rey) 외교부장관 이후 23년 만

- (일정) △조용원 당 비서와 면담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 △주체사상탑 참관 등

o 북한은 "두 나라 외교부문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정세에 대한 평가와 의견이 교환" 보도

* 스위스 외교부장관은 △재개설된 스위스 외교사무소**를 확인하고 △양자관계를 정상화하며 △북한 당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재개하는 목적으로 방문(10.31. 스위스 외교부 보도자료)

** 스위스는 10.19.부터 북한에 주중 스위스 대사관 관할하에 있는 스위스 외교사무소 운영 재개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31. 노동·중통)

o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 "외무상 최선희 동지와 스위스연방 외무상 인야찌오 까씨스 사이의 회담이 30일 평양의사당에서 진행"(10.31. 노동·중통)

- "두 나라 외교부문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정세에 대한 평가와 의견이 교환"

o (조용원 당 비서와 면담)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용원 동지가 30일 평양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스위스연방 외무상 인야찌오 까씨스를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

지방공업공장 생산 정상화 강조

1 개 요

o 북한은 △지역일꾼의 책임성 △특산품 개발 △품질 제고 △원가 절감 사례를 소개하며 지방공업공장 생산 정상화 강조(10.30. 노동)

- (일꾼 책임의식) 성천군·재령군·함주군 사례 인용, 특산품 개발, 품종 확대 및 질 제고, 원료 확보, 원가 절감에 일꾼들의 수준과 능력, 책임성 강조
- (특산품 개발) 운산군 사례 인용, 안정적인 원료원천 확보, 실리보장 원칙, 종업원 대상 기술강습과 전습, 선진시설 참관 등 기술역량 강화 주문
- (품질제고) 구성시 옷공장 사례 인용, 품종 35종으로 확대, 기술기능수준 제고, <전국피복, 신발전시회-2026> 참가 선전
- (품종·원가 최소화) 신양군 사례 인용,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생산단가 절감 선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30. 노동)

o “당에서 마련해준 자립적 발전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가자”

- “지역 일꾼들이 새 경공업공장들의 정상 운영을 위한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입장에서 조직전개하는 것이 필수적”
- “지역 특색이 살아나는 특산물들을 개발하고 그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는 성천군과 재령군 등 여러 지역의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
- “(성천군) 군의 책임일꾼이 밤 보관 관련 자료 직접 연구, 군 안의 기술인재를 찾아내어 사업조건, 생활조건 마련, 군의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었음.”
- “(운산군) 지역 원료원천에 의거하되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생산 정상화, 군 일꾼들이 특별히 힘을 넣은 것은 군식료공장 기술역량강화, 특산품 개발과 관련한 기술강습과 전습을 받도록 … 중앙의 이름난 식료품생산단위 참관 진행”
- “(구성시옷공장) 준공 후 10여종에 120여점 제품생산 … 올해에 피복제품의 종류를 35종으로 늘려, 최상의 질을 보장하는데 모든 역량 집중, 공장일꾼들은 경쟁을 의의있게 조직하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데 큰 힘”
- “(신양군일용품공장) 새 기술을 끊임없이 받아들여 생산원가를 낮추고 있음.”

전국 모범 인민반장 평양 견학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10.29.-11.4. 전국 모범 인민반장들의 평양 견학이 진행(10.30. 노동)

* 평양, 함경남도,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모범적인 300여 명의 인민반장들 참가

- △만수대 동상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미림승마클럽 등 방문

o 모범 인민반장들의 평양 견학을 통해 기층조직 책임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통제를 담당하는 인민반 기능 강화 도모

- △제3차 전국인민반장열성자회의('25.3.16.-17.)*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26.3.23.)** 등을 통해 사회주의 도덕기풍 확립을 위한 인민반사업 강화 강조

*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7월11일붉은기동, 인민반쟁취운동 더욱 심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 대중적인 투쟁으로 전개"('25.3.18. 노동)

** "국가사회생활의 기층단위이며 주민들의 생활거점인 동, 인민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3.24. 노동)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30. 노동)

o "전국의 모범적인 인민반장들의 평양견학이 진행되고 있음."(10.30. 노동)

- "2023년부터 시작된 평양견학은 올해까지 세 번째로 진행", "평양시와 함경남도, 강원도를 비롯하여 전국의 모범적인 300여 명의 인민반장들이 참가"
- "첫날인 29일 만수대 언덕에 모신 동상 찾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미림승마구락부에서 유쾌한 한때", "조선혁명박물관, 대성산혁명렬사릉 등 돌아봐",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옥류관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과 급양봉사기지들에서 성의있는 봉사 받음."
- "인민대중중심의 국가사회제도를 떠받드는 초석, 주민생활의 거점인 인민반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본분을 다해갈 굳은 결의", "인민반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킬 결의"
- "평양견학, 11월 4일까지 계속"

류경안과종합병원 창립 10주년 동향

1 개 요

o 북한은 류경안과종합병원 창립 1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10.30. 노동·중통)

* '16.10.30. 개원, 평양 문수지구 소재, 외래병동(4층)·입원병동(8층) 및 안경상점 등 구성

- △김정은 위원장의 병원 건설·운영 지원 부각 △3대혁명붉은기 등 모범적 성과 선전 △지방병원 기술전습·이동치료교육대 활동 확대 주문
- 관련 성과 소개(10.29.), 당 중앙위 축하문 전달모임(11.1.) 등

o 창립 10주년을 계기로 김 위원장의 치적을 부각하고 지방 의료지원 역할 강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29.-11.2. 노동)

o "인민의 밝은 눈빛을 지켜주는 사랑의 집 - 창립 10돌을 맞이하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찾아서"(10.29. 노동)

- "개원 후 현재까지 1만 4500여차 먼거리 협의, 수만명의 환자 대상 의료봉사, 연 수백명의 의료일군들이 주요전구에 나가 검진·치료활동 진행"
- "개원초보다 두배에 달하는 치료전문가 양성, 수십명의 학위소유자 배출"

o "류경안과종합병원 창립 10돌 기념보고회 10.29. 진행"(10.30. 노동)

- "김정은 동지, 안과 전문치료도 하고 안경봉사도 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안과종합병원 건설 구상, 공사 전 과정 이끌고, 병원 관리운영 가르치심"
- "지난 10년간 선진적인 치료방법들을 활용하여 의료봉사의 질 개선, 3대혁명붉은기,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쟁취, 모범준법단위 등의 영예"
- "의료일군, 전문 지식과 의학적 자질, 공산주의적인 풍모 지니고, 현대적으로 일떠선 지방병원들에 대한 기술전습·이동치료교육대 활동 벌려야"

o "당 중앙위원회가 류경종합병원 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전달모임 11.1. 진행"(11.2. 노동)

* △(참가) 당비서 김승두, 일군들, 종업원 △(진행) 김승두, 축하문 전달→토론→결의문 채택

- (축하문) "3대혁명붉은기 등 영예로운 칭호들, 진취적 투쟁·혁신의 결실", "우리나라 안과부문의 중심, 치료와 봉사수준에서 최고인 의료기관"

MSMT 회원국 및 EU 공동성명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

1 개 요

o 외무성 대변인은 10.30. MSMT 회원국·EU 공동성명 및 미·호주·EU의 대북 제재 관련 담화를 발표(10.31. 중통)

*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 : UN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패널 해체('24.2.) 대응으로 '24.10월 출범, 한·미·일 주도 11개국 참여

- △미국·호주·EU 독자제재(미국 11.28., 호주 10.23., EU 10.12.) △10.28. MSMT 11개국 및 EU 공동성명(독자제재 근거로 MSMT 조사결과 제시, CVID 및 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

- MSMT 공동성명(KST 10.29.) 후 1일 만에 외무성 대변인 반응

o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반발하며 대북제재의 무용성 부각

- 비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주장, 국제사회에 '비핵화 종결 사안' 지속 강조

* "헌법적 지위 부정", «조선의 비핵화», "이론적·실천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최종결론"

- "바닥이 난 제재고간", "전략적 실패" 등 대북제재 한계 부각

- '북러협력' 불법성 지적에 대해 "정당한 대외협력·주권행사"로 반발

2 북한매체 주요 내용(10.31. 중통)

o "《다무적제재감시팀》 성원국들과 EU는 조선을 반대하는 제재조치들을 발동, 《비핵화》 의지와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을 운운하는 《공동성명》을 조작"

- "외무성은 부당하고 무근거한 구실을 붙여 악의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정당화하려는 미국과 추종세력의 음모 책동을 주권침해 행위로 낙인, 규탄배격함."

- "제재와 압박은 약자에게 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아님.", "미국·서방의 상투적인 제재소동은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함."

- "조선은 주권 국가들 간의 정상적·호혜적 협력관계 발전을 구속하고 저애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악의적 기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책임적인 주권행사로서 국가의 존엄과 발전권익을 철저히 수호해 나갈 것임."

주요 인물 동정

김정은(총비서)

9.30.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80돐 맞이 축하방문(10.1. 노동·중통)
10.1. 중국 건국 77주년 맞아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 발송(10.1. 노동·중통)
10.1. 김일성종합대학 80돐 기념 교원, 연구사들과 기념촬영(10.2. 노동·중통)
10.3. 동부지역 전략미사일발사훈련 참관(10.4. 노동·중통)
10.7. 러시아 대통령 푸틴 생일 축전 발송(10.7. 노동·중통)
10.8. 라오스 주석 통룬 시술릿에게 정권 수립 78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10.10. 노동·중통)
10.10.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10.11. 노동·중통)
10.11. 당 창건 81돐 기념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가(10.13. 노동·중통)
10.16.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교육설비 전달(10.17. 노동·중통)
10.19. 경공업부문 피복, 신발전시회장 방문(10.20. 노동·중통)
10.22.~23.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시 지도(10.24. 노동·중통)
10.24.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방문(10.25. 노동·중통)
10.26. 또럼 베트남 총비서, 주석의 북한 정권 수립 78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10.27. 노동·중통)
10.27.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10.28. 노동·중통)
10.29.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10.30. 노동·중통)

고명수(제10군단장)

10.22.~23.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10.24. 노동·중통)

고병현(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10.11.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 81돐 기념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가 동행(10.13. 노동·중통)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고인철(제12군단장)

10.22.~23.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10.24. 노동·중통)

김광남(금속공업상)

10.1. 무산광산연합기업소 폭약장입갱뚫기선포모임 참가(10.3. 노동)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김광진(양곡관리상)

10.5.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참가(10.6.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10.18.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김광혁(공군사령관)

10.11.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 81돐 기념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가 동행(10.13. 노동·중통)

10.22.~23.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10.24.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김덕훈(내각 제1부총리)

10.5.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참가(10.6. 노동·중통)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10.24. 김정은 위원장, 중국 랴오닝성 단둥 방문 시 동행(10.25.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김동칠(황해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9.29. 사리원시 경암불고기전문식당 준공사(10.1. 노동)

10.9. 신계군 새집들이모임 참가(10.10. 노동)

김두일(함경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9.30. 오중흡청진사범대학창립 80돐 기념보고회 참석(10.2. 노동)

김병호(조선중앙통신사 사장)

10.19. 김정은 위원장, 경공업부문 피복, 신발전시회장 방문 시 동행(10.20. 노동·중통)

10.24. 김정은 위원장, 중국 랴오닝성 단둥 방문 시 동행(10.25. 노동·중통)

김성(UN 주재 상임대표)

10.25. '지뢰폭발사건' 관련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 서한(10.26. 중통)

10.29. UN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 논의 관련 담화(10.30. 중통)

김성남(당 국제부장 겸 비서)

9.30.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80돐 맞이 축하방문 시 동행(10.1. 노동·중통)

김선명(화학공업상)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김성기(국방상)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10.11.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 81돐 기념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가 동행(10.13. 노동·중통)

10.22.~23.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10.24. 노동·중통)

10.27.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시 동행(10.28.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김성남(당 국제부장 겸 비서)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10.11.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 81돐 기념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가 동행(10.13. 노동·중통)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10.18.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대성산혁명열사릉 화환 진정(10.18. 노동·중통)

10.24. 김정은 위원장, 중국 랴오닝성 단둥 방문 시 동행(10.25.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김수길(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9.29. 김일성종합대학 80돐기념 학술토론회 개막식 참가(10.1. 노동)

9.30.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80돐 맞이 축하방문 시 동행(10.1. 노동·중통)

10.2. 평양제2사범대학 준공식 참가(10.3. 노동)

10.8. 대중급양봉사기지 모란봉불고기전문식당 준공식 참가(10.9. 노동)

10.9. 창당 81년 경축 대성산팀과 평양철도국팀 사이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 관람(10.10. 노동)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10.16.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설비 전달모임 참가 및 전달사(10.17. 노동·중통)

10.19. 평양시 교육부문 궐기대회 참가 및 보고(10.20. 노동)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김승두(당 부장 겸 비서)

9.30.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80돐 맞이 축하방문 시 동행(10.1. 노동·중통)

9.30. 김일성종합대학 80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 노동·중통)

미상 선진과학기술 및 제품전시회-2026 페막식 참가(10.9. 노동)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10.11.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 81돐 기념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가 동행(10.13. 노동·중통)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10.18.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대성산혁명열사릉 화환 진정(10.18. 노동·중통)

10.19. 평양시 교육부문 궐기대회 참가(10.20. 노동)

10.19.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6 개막식 참가(10.20. 노동)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10.30.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6 폐막식 참가(10.31. 노동)

김승찬(김일성종합대학 총장)

9.30.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80돐 맞이 축하방문 시 동행(10.1. 노동·중통)

9.29. 김일성종합대학 80돐기념 국제학술토론회 개막사(10.1. 노동·중통)

9.30. 김일성종합대학 80돐기념 중앙보고대회 보고(10.1. 노동)

10.1.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80돐기념 교원, 연구사들과 기념촬영 시 동행(10.2. 노동·중통)

10.19. 평양시 교육부문 궐기대회 참가 및 결의토론(10.20. 노동)

김여정(당 총무부장)

10.2.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관련 두 번째 담화(10.2. 중통)

10.2.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관련 입장 발표(《우리는 조한사이의 접촉가능성이 제기될수 있는 사소한 공간이나 여지도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그것들과 마주설 일은 없을것이다.》)(10.2. 중통)

10.3. 전략무기발사훈련 진행 관련 김여정 부장 발표(10.3. 중통)

10.8. 한국 의료장비지원 관련 담화 발표(10.8. 중통)

10.9. 한국 의료장비지원 관련 서면입장 발표(10.9. 중통)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10.11.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 81돐 기념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가 동행(10.13. 노동·중통)

10.19. '남부 국경화' 관련 우리 군 대응 비난 담화(10.19. 중통)

10.19. 김정은 위원장, 경공업부문 피복, 신발전시회장 방문 시 동행(10.20. 노동·중통)

10.20. 남부국경요새화공사현장 주요지점 현지시찰(10.21. 중통)

10.21. 국경요새화 현장 시찰 관련 추가 담화(10.21. 중통)

10.22. 현장 시찰 관련 청와대 국방특별보좌관 언급 비난 발표(10.22. 중통)

10.24. 김정은 위원장, 중국 랴오닝성 단둥 방문 시 동행(10.25.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김유일(전력공업상)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10.18.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김일국(체육상)

1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선수단 재일동포환송모임(10.5. 조선신보)

10.6. 제20차 아시안게임 참가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귀국(10.7.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10.18.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10.30. 공화국선수권대회 폐막식 참가 및 폐막사(10.31. 노동)

김재룡(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9.30.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80돐 맞이 축하방문 시 시 동행(10.1. 노동·중통)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10.19. 김정은 위원장, 경공업부문 피복, 신발전시회장 방문 시 동행(10.20. 노동·중통)

10.24. 김정은 위원장, 중국 랴오닝성 단둥 방문 시 동행(10.25. 노동·중통)

김정관(당 부장 겸 비서)

10.9. 창당 81년 경축 대성산팀과 평양철도국팀 사이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 관람(10.10. 노동)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10.18.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대성산혁명열사릉 화환 진정(10.18.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김정식(당 제1부부장)

10.3. 김정은 위원장, 동부지역 전략미사일발사훈련 참관 시 동행(10.4. 노동·중통)

10.11.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 81돐 기념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가 시 연설(10.13. 노동·중통)

10.14. 미사일총국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10.15. 중통)

10.16. 우리군 극초음속미사일 관련 담화(10.16. 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김철남(재해방지상)

10.11. 러시아연방 비상사태성 대표단 평양 도착 시 맞이(10.12. 노동·중통)
10.12. 재해방지상과 러시아연방 비상사태상 사이 회담(10.13. 노동·중통)
10.13. 박태성 내각총리 러시아연방 비상사태상과 담화 시 동행(10.14. 노동·중통)
10.13. 러시아연방 비상사태성 대표단 귀국 시 환송(10.14.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김철범(지방공업상)

10.21. 전국피복, 신발전시회-2026 개막식 참가(10.22. 노동)

김철원(최고검찰소 소장)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10.11.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 81돐 기념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가 동행(10.13. 노동·중통)
10.19. 최고검찰소대표단 러시아 방문위해 평양 출발(10.20. 노동·중통)
10.23. 러시아를 방문했던 최고검찰소대표단 귀국(10.24. 노동·중통)

김학철(제8군단장)

10.22.~23.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10.24. 노동·중통)

김형식(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9.30. 중국 건국 77돐 즈음 중국특명전권대사 연회 참가(10.1. 노동)
10.3. 개천절 행사 참가(10.4. 노동)
10.9. 조국에 대한 노래를 시대의 명곡으로 훌륭히 창작한 작곡가에게 김일성상 수여식 참가(10.10. 노동)
10.9. 창당 81년 경축 대성산팀과 평양철도국팀 사이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 관람(10.10. 노동)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대성산혁명열사릉 화환 진정(10.18. 노동·중통)
10.25. 중국인민지원군 6.25참전 76돐 즈음 우의탑에 화환 진정(10.26.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노광철(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대성산혁명열사릉 화환 진정(10.18. 노동·중통)

리경일(내각 부총리)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리경철(평안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10.11.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 81돐 기념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가 동행(10.13. 노동·중통)

10.22.~23.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10.24. 노동·중통)

리용남(중국 주재 대사)

10.15. 북중 신압록강대교 개통식 현장 참가(10.16. 노동·중통)

10.24. 김정은 위원장, 중국 랴오닝성 단둥 방문 시 동행(10.25. 노동·중통)

리봉춘(제11군단장)

10.11.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 81돐 기념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가 동행(10.13. 노동·중통)

10.22.~23.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10.24. 노동·중통)

리병철(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리영길(군 총참모장)

10.11.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 81돐 기념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가 동행(10.13. 노동·중통)

10.22.~23.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10.24.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리영철(교육상)

9.29. 김일성종합대학 80돐기념 국제학술토론회 개막식 참가 및 축하연설(10.1. 노동·중통)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10.19. 평양시 교육부문 궐기대회 참가(10.20. 노동)

10.19. 러시아 교육상과 회담(10.20. 노동·중통)

리영철(석탄공업상)

9.30. 삼신탄광창립 80돐 기념보고회 참석(10.1. 중통, 10.2. 노동)

리용근(경공업상)

10.21. 전국피복, 신발전시회-2026 개막식 참가 및 개막사(10.22. 노동)

리원종(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10.8. 창당 81년 경축 직총중앙노동자 예술선전대와 독창, 독주경연입선자들의 종합공연 관람(10.9. 노동)

10.15.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노작연구발표모임 근로단체들 각각 진행 및 참가(10.16. 노동)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10.30. 평안북도 간석지농장들에 직맹호농기계 전달 모임 참가(10.31. 노동)

리일환(당 부장 겸 비서)

9.30.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80돐 맞이 축하방문 시 동행(10.1. 노동·중통)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 및 보고(10.17. 노동·중통)

10.19. 김정은 위원장, 경공업부문 피복, 신발전시회장 방문 시 동행(10.20. 노동·중통)

10.20. 박정천·김여정, 남부국경요새화공사현장 주요지점 현지시찰 시 동행(10.21. 중통)

10.24. 김정은 위원장, 중국 랴오닝성 단둥 방문 시 동행(10.25. 노동·중통)

리정국(제5군단장)

10.22.~23.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10.24. 노동·중통)

리정남(함경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리창대(국가정보국장)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10.11.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 81돐 기념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가 동행(10.13. 노동·중통)

리철만(내각 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

10.5.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참가(10.6. 노동·중통)

리호림(당 경공업부장)

10.9. 창당 81년 경축 대성산팀과 평양철도국팀 사이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 관람(10.10. 노동)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10.19. 김정은 위원장, 경공업부문 피복, 신발전시회장 방문 시 동행(10.20. 노동·중통)

리히용(당 부장 겸 비서)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10.18.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대성산혁명열사릉 화환 진정(10.18. 노동·중통)

문성혁(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9.30. 중국 건국 77돐 즈음 중국특명전권대사 연회 참가(10.1. 노동)

박광섭(해군사령관)

10.11.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 81돐 기념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가 동행(10.13. 노동·중통)

10.22.~23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10.24.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박광웅(당 부장)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박동석(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10.9. 조선기자동맹 창립 80년 기념보고회 참가 및 기념보고(10.10. 노동)

박명호(함경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9.28. 청진불고기전문식당 준공사(9.29. 노동)

9.30. 오중흡청진사범대학창립 80돐 기념보고회 참석(10.2. 노동)

박성철(개성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10.4. 개성시 불고기전문식당 준공식 참가(10.5. 노동)

박성철(자강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10.21. 장자산혁명사적관창립 50돐 기념보고회 참가(10.22. 노동)

박영일(군 총정치국 부국장)

10.22.~23.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10.24. 노동·중통)

박정근(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10.5.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참가(10.6. 노동·중통)

10.9. 창당 81년 경축 대성산팀과 평양철도국팀 사이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 관람(10.10. 노동)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10.11.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 81돐 기념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가 동행(10.13. 노동·중통)

10.30. 공화국선수권대회 폐막식 참가(10.31. 노동)

박정천(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10.11.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 81돐 기념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가 동행(10.13. 노동·중통)

10.20. 남부국경요새화공사현장 주요지점 현지시찰(10.21. 중통)

10.22.~23.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10.24. 노동·중통)

10.27.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시 동행(10.28.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박창호(황해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9.29. 사리원시 경암불고기전문식당 준공식 참가(10.1. 노동)

10.9. 신계군 새집들이모임 참가(10.10. 노동)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박태성(내각 총리)

9.30.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80돐 맞이 축하방문 시 동행(10.1. 노동·중통)

9.30. 김일성종합대학 80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 노동·중통)

미상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10.6. 노동·중통)

10.5.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참가(10.6. 노동·중통)

10.10. 창당 81년 경축 대성산팀과 평양철도국팀 사이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 관람(10.10. 노동)

10.13. 러시아연방 비상사태상과 담화(10.14. 노동·중통)

10.15. 북중 신압록강대교 개통식 화상 참가(10.16. 노동·중통)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대성산혁명열사릉 화환 진정(10.18. 노동·중통)

미상 박태성 내각총리, 여러부문 사업 현지요해(10.20. 노동·중통)

박현철(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10.14. 함흥의학대학창립 80돐 기념보고회 참가(10.15. 노동)

방두섭(사회안전상)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10.11.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 81돐 기념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가 동행(10.13. 노동·중통)

백민광(중앙은행 총재)

10.28. 중앙은행창립 80돐 기념보고회 참석 및 보고(10.29. 노동)

백성국(강원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백은철(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10.7. 창당 81년 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관람(10.8. 노동)

10.15.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청년학생들의 웅변대회 참가(10.16. 노동)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청년학생들의 종합공연 관람(10.17. 노동)

신영일(당 부장 겸 비서)

9.30.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80돐 맞이 축하방문 시 동행(10.1. 노동·중통)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10.18.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대성산혁명열사릉 화환 진정(10.18.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신영철(나선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10.9. 나선불고기전문식당 준공식 참가(10.10. 노동)

신창길(자강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10.14. 덕암청년발전소 준공식 진행(10.15. 노동)

10.16. 자강도 희천제사공장 노동자합숙 준공식 참가(10.17. 노동)

신홍철(러시아 주재 대사)

10.13. 조러외교관계설정 78돐 즈음 러시아주재 북한 대사관 연회 참가(10.19. 노동)

안금철(당 부장 겸 비서)

10.9. 창당 81년 경축 대성산팀과 평양철도국팀 사이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 관람(10.10. 노동)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10.18.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대성산혁명열사릉 화환 진정(10.18.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안영환(제1군단장)

10.11.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 81돐 기념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가 동행(10.13. 노동·중통)

10.22.~23.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10.24.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안명준(황해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10.1. 황해남도 해주불고기전문식당 준공식 참가 및 준공사(10.2. 노동)

엄주호(군 보위국장)

10.22.~23.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10.24. 노동·중통)

양명철(평안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10.15. 북중 신압록강대교 개통식 현장 참가(10.16.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10.18.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대성산혁명열사릉 화환 진정(10.18. 노동·중통)

유광우(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10.27. 김정은 위원장,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시 동행(10.28.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윤정호(대외경제상)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10.18.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대성산혁명열사릉 화환 진정(10.18. 노동·중통)

10.26. 제18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식 참가 및 개막사(10.27. 노동·중통)

장창하(미사일총국장)

10.3. 김정은 위원장, 동부지역 전략미사일발사훈련 참관 시 동행(10.4. 노동·중통)

10.14. 미사일총국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참관(10.15. 중통)

10.15. 우리군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관련 중통 기자 문답(10.15. 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전승국(내각 부총리)

9.29. 김일성종합대학 80돐기념 국제학술토론회 개막식 참가(10.1. 노동·중통)

9.30.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80돐 맞이 축하방문 시 동행(10.1. 노동·중통)

10.3. 개천절 행사 참가(10.4. 노동)

미상 선진과학기술 및 제품전시회-2026 폐막식 참가 및 폐막사(10.9. 노동)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10.11.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 81돐 기념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가 동행(10.13. 노동·중통)

10.19. 평양시 교육부문 궐기대회 참가(10.20. 노동)

10.19.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6 개막식 참가(10.20. 노동)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10.30.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6 폐막식 참가(10.31. 노동)

전향순(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10.8. 창당 81년 경축 여맹중앙예술선전대공연 관람(10.9. 노동)

10.15.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노작연구발표모임 근로단체들 각각 진행 및 참가(10.16. 노동)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전현철(내각 부총리)

10.5.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참가(10.6.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정경택(당 부장 겸 비서)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10.11.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 81돐 기념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가 동행(10.13. 노동·중통)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10.18.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대성산혁명열사릉 화환 진정(10.18.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정명남(제4군단장)

10.11.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 81돐 기념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가 동행(10.13. 노동·중통)

10.22.~23.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10.24. 노동·중통)

조용원(당 조직지도부장 겸 비서)

9.30.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80돐 맞이 축하방문 시 동행(10.1. 노동·중통)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10.24. 김정은 위원장, 중국 랴오닝성 단둥 방문 시 동행(10.25.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10.30. 스위스 외무상과 면담(10.31. 노동·중통)

조철수(스위스 주재 대사)

10.30. 조용원 당 비서, 스위스 외무상과 면담 시 참가(10.31. 노동·중통)

10.30. 최선희 외무상, 스위스 외무상과 회담 시 참가(10.31. 노동·중통)

조춘룡(당 부장 겸 비서)

9.30.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80돐 맞이 축하방문 시 동행(10.1. 노동·중통)

10.19. 김정은 위원장, 경공업부문 피복, 신발전시회장 방문 시 동행(10.20.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주성남(제2군단장)

10.11.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 81돐 기념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가 동행(10.13. 노동·중통)

10.22.~23.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10.24. 노동·중통)

주용일(정보산업상)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10.19.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6 개막식 참가 및 개막사(10.20. 노동)

10.30.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6 폐막식 참가 및 폐막사(10.31. 노동)

주창일(당 부장 겸 비서)

9.30. 김일성종합대학 80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 노동·중통)

10.9. 조국에 대한 노래를 시대의 명곡으로 훌륭히 창작한 작곡가에게 김일성상 수여식 참가(10.10. 노동)

10.9. 창당 81년 경축 대성산팀과 평양철도국팀 사이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 관람(10.10. 노동)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10.11.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 81돐 기념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가 동행(10.13. 노동·중통)

10.14.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3대혁명붉은기 수여 모임 참가(10.15. 노동)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청년학생들의 종합공연 관람(10.17. 노동)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10.18.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대성산혁명열사릉 화환 진정(10.18. 노동·중통)

10.19. 김정은 위원장, 경공업부문 피복, 신발전시회장 방문 시 동행(10.20. 노동·중통)

10.20. 만수대예술극장창립 50돐 기념보고회 참가 및 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10.21. 노동)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주철규(당 부장)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지영복(제9군단장)

10.22.~23.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10.24. 노동·중통)

지형록(양강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10.18. 양강도 혜산 불고기전문식당 준공식 참가 및 준공사(10.19. 노동)

최경남(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10.4. 개성시 불고기전문식당 준공식 참가 및 준공사(10.5. 노동)

최광일(제91군단장)

10.22.~23.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10.24. 노동·중통)

최선희(외무상)

9.30.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80돐 맞이 축하방문 시 동행(10.1. 노동·중통)

10.1. 중국 외교부장에 창건 77주년 기념 축전 발송(10.2. 중통)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10.11. 김정은 위원장, 당 창건 81돐 기념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가 동행(10.13. 노동·중통)

10.19. 김정은 위원장, 경공업부문 피복, 신발전시회장 방문 시 동행(10.20. 노동·중통)

10.24. 김정은 위원장, 중국 랴오닝성 단둥 방문 시 동행(10.25.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10.30. 스위스 외무상과 회담(10.31. 노동·중통)

최창학(당 중앙위 제1부부장)

10.7. 창당 81년 경축 국가미술전람회 개막식 참가(10.8. 노동)

최춘길(당 부장)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10.18. 노동·중통)

10.17.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대성산혁명열사릉 화환 진정(10.18. 노동·중통)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최희태(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10.2. 평양제2사범대학 준공사(10.3. 노동)

10.8. 대중급양봉사기지 모란봉불고기전문식당 준공식 참가 및 준공사(10.9. 노동)

10.19. 평양시 교육부문 궐기대회 참가(10.20. 노동)

한종혁(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10.7. 창당 81년 경축 농근맹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 참가(10.8. 노동)

10.15.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노작연구발표모임 근로단체들 각각 진행 및 참가(10.16. 노동)

10.16.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참가(10.17. 노동·중통)

현송월(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 **9.30.**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80돐 맞이 축하방문 시 동행(10.1. 노동·중통)
- **10.10.** 김정은 위원장,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 시 동행(10.11. 노동·중통)
- **10.19.** 김정은 위원장, 경공업부문 피복, 신발전시회장 방문 시 동행(10.20. 노동·중통)
- **10.24.** 김정은 위원장, 중국 랴오닝성 단둥 방문 시 동행(10.25. 노동·중통)
- **10.29.** 김정은 위원장,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 참석 시 동행(10.30. 노동·중통)

현은철(문화상)

- **10.5.**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참가(10.6. 노동·중통)
- **10.7.** 창당 81년 경축 국가미술전람회 개막식 참가 및 개막사(10.8. 노동)
- **10.8.** 창당 81년 경축 학생소년취주악연주회 관람(10.9. 노동)

홍철웅(제7군단장)

- **10.22.~23.**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10.24. 노동·중통)

황만복(강원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 **10.17.** 강원도친선대표단 단장으로서 중국 장쑤성으로 출발(10.18. 노동·중통)
- **10.24.** 중국 강소성을 방문했던 강원도친선대표단 귀국(10.25. 노동·중통)

월간 보도일지

10.1.(목)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80년 관련 축하 방문 및 연설(노동·중통)
- o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80년 관련 중앙보고대회 진행 등(노동)

대남

대외
- o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에 중국 건국 77주년 축전(노동·중통)

10.2.(금)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연구사와 기념사진 촬영(노동·중통)
- o 평양제2사범대학, 오중흡청진사범대학, 삼신탄광, 자강도과학기술도서관 창립 80주년 기념 보고회 진행(노동·중통)

대남
- o 김여정 부장, 지뢰폭발 관련 2·3번째 담화(중통)

대외
- o 최선희 외무상, 중국 외교부장에 건국 77주년 기념 축전 송부(중통)

10.3.(토)

대내
- o 평양 제2사범대학 준공식 진행(노동)
- o 김여정 당 중앙위 부장, '전략무기발사훈련' 진행 발표(중통)

대남

대외
- o UN사무총장의 북한인권보고서 제출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중통)

10.4.(일)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훈련 참관(노동·중통)
- o 개천절 행사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10.5.(월)

대내
- o 개성시에 불고기전문식당 신축, 준공식 진행(노동·중통)
- o 황해북도에서 의료용소모품공장건설 추진(중통)

대남

대외

10.6.(화)

대내	o 박태성 내각총리, 순천탄광기업소·황남 농장 등 현지요해(노동·중통) o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화상회의로 진행(노동·중통) o 평안북도에서 《소년》호 농기계증정모임 진행(노동)
대남	o 합참 최종조사 발표 관련 외무성 비난 성명(중통)
대외	

10.7.(수)

대내	o '전국산림과학기술성과전시회 및 발표회' 진행(노동) o '자연에너지 이용은 중요한 정책적 과업'임을 강조(노동)
대남	
대외	o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 생일 축전(노동·중통) o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관련 북한 국제문제평론가 논평(중통) o 아시안게임 참가 북한 올림픽대표단 및 세계태권도경기대회-2026 참가 선수단 귀국(노동)

10.8.(목)

대내	o '인민의 당' 역할 강조(노동) o 노동당 창당 81년 △국가미술전람회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농근맹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경축모임 진행 등(노동) o 농업·석탄 등 주요 분야 경제성과 선전(노동)
대남	o 김여정 부장, 우리 대북 인도지원 관련 비난 담화(중통)
대외	o 정보산업성 대표단, 러시아로 출발(노동)

10.9.(금)

대내	o 노동당 창당 81년 관련 △직총중앙노동자예술선전대와 독창, 독주 경연입선자들의 종합공연 진행 △여맹중앙예술선전대 공연 진행 △학생소년 취주악연주회 진행(노동·중통) o 황해북도 태양광발전소 1단계 공사 완공, 전력공급준비사업 마감단계(노동) o 모란봉불고기전문식당 준공식 진행(노동·중통)
대남	o 김여정 부장, 대북 인도협력 계획 관련 추가 입장 발표(중통)
대외	o 노동당 창당 81년 관련 △중국 공산당 중앙위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대통령 등 해외인사 꽃바구니 및 축전 발송(노동·중통)

10.10.(토)

대내	o 노동당 창당 81년 관련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금수산태양궁전 방문 △대성산팀과 평양철도국팀사이의 여자빙상하키경기 진행(노동·중통) o 조선기자동맹, 강동수력건설연합기업소 창립 80년 기념보고회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o 미국 2026 인신매매보고서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중통)

10.11.(일)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노동당 창당 81년 경축공연 관람(노동·중통) o 노동당 창당 81년 관련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년사적관 참관 △청년학생들의 야회 △여맹일군들과 여맹원들의 무도회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10.12.(월)	
대내	o 노동당 창당 81년 경축공연 연일 진행(노동·중통) o《김정일전집》제72권 출판(노동·중통)
대남	
대외	o 노동당 창당 81년 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노동·중통)
10.13.(화)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참석(노동·중통) o 미사일총국,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중통) o 조선작가동맹창립 80년 기념보고회(노동)
대남	
대외	o 북한 재해방지상-러시아 비상사태상 회담(노동·중통)
10.14.(수)	
대내	o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100주년 관련 중앙연구토론회 진행(노동) o 함경북도에서 축산물생산기술전습회 진행(중통)
대남	
대외	o 박태성 내각 총리, 러시아 비상사태상 접견(노동·중통) o 러시아 비상사태성대표단 여러곳 참관 후 귀국(노동·중통)
10.15.(목)	
대내	o 미사일총국,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중통) o 함흥의대학창립 80년 기념보고회 진행(노동) o 덕암청년발전소 신축, 준공식 진행(노동)
대남	
대외	o 조로외교관계설정 78년 관련 주북 러시아 대사 연회 마련(노동·중통) o 미사일총국장, 우리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관련 기자 문답(중통)
10.16.(금)	
대내	o《비물질문화유산전시회-2026》개막(노동) o《온실남새(채소)의 맛평가를 위한 군중심사-2026》진행(노동) o 원격재교육강습 활발히 진행(노동)

대남	o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우리 극초음속미사일 성공 재반박 담화(중통)
대외	o 조중 신압록강대교 개통식(노동·중통) o 중국 외교부대변인의 대만 당국자 <독립> 발언 반박 내용 소개(노동)
10.17.(토)	
대내	o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주년 관련 △중앙보고대회 △청년학생들의 종합공연 진행 등(노동·중통) o 국방과학연구기관, 신형 어뢰《잠-2.0》수중 시험발사 진행(중통) o 만경대닭공장, 용성닭공장 창립 60년 기념보고회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o 북러 경제공동위 체신·정보기술 분과위 3차 회의, 의정서 조인(노동·중통)
10.18.(일)	
대내	o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100주년 관련 △노동당 중앙위 일군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화환 진정 △각지에서 다양한 정치문화사업 진행 (노동·중통) o 함경북도에서 여맹원들이 힘든 부문으로 진출(노동·중통)
대남	
대외	o 강원도친선대표단 중국 강소성으로 출발(노동·중통)
10.19.(월)	
대내	o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산소열법용광로·산소분리기 보수 완료, 생산 진입(노동·중통) o 황해북도 봉산군에 큰 목화가공기지 신축(중통)
대남	o 김여정 부장, 군사분계선 일대 우리 군 대응 비난 담화(중통)
대외	o 북러외교관계설정 78년 관련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연회 마련(노동)
10.20.(화)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경공업부문 피복, 신발전시회장 방문(노동·중통) o 박태성 내각총리,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노동·중통) o 평양시 교육부문 궐기대회 진행(노동)
대남	o 우리 호국훈련, 미일 합동군사연습 비난 중통 논평(중통)
대외	o 러시아 교육성대표단 △평양 도착 △북러 교육상 회담 진행 △여러곳 참관 및 해방탑에 화환 진정(노동·중통) o 일본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 유가족협회 대변인 담화(중통)
10.21.(수)	
대내	o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한 사회주의 애국운동·혁명적인 대중운동 독려(노동) o 각지 가을걷이 진행상황 선전 보도(노동)
대남	o 국방성 고문 박정천,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 주요지점 현지 시찰(중통) o 김여정 부장, '국경요새화' 관련 담화(중통)

대외

10.22.(목)

대내
- o《삼지연관광전시회-2026》 진행(노동)
- o《전국 피복, 신발전시회-2026》 평양 개막(노동)

대남
- o 김여정 부장, '국경요새화' 관련 잇달아 입장 표명(중통)

대외
- o 시진핑, 중국 건국일 77년 김정은 축전에 답전(노동·중통)

10.23.(금)

대내
- o 지방발전정책 선전 및 완공 독려(노동)
- o 각 도·직할시들에서 교육부문 궐기대회 진행(노동)
- o 각종 토론회 및 과학기술발표회 진행(노동)

대남

대외
- o 중국 퇴역군인사업부 대표단, 평양 도착(노동·중통)

10.24.(토)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 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진행(노동·중통)
- o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평양시 낙랑구역에 지방예산제모범구역칭호 수여)(노동·중통)
- o 전국기초과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10.25.(일)

대내
- o 황해북도 신평군에 중국군열사릉원 준공식 진행(노동·중통)
- o 강원도당위원회에서 집중강연선전대활동 전개(노동)

대남

대외
- o 김정은 위원장, 중국 단둥 방문(노동·중통)
- o 북러외교관계설정 78년 관련 러시아영화 상영주간 개막(노동·중통)
- o 중국 퇴역군인사업부 대표단 여러곳 참관(노동·중통)

10.26.(월)

대내
- o 노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근로자》 창간 80년 기념보고회 진행(노동·중통)
- o 교육대강령실현 관련 인재육성, 과학연구사업 강조 각지 대학, 학교들에서 궐기모임 진행(노동)
- o 자강도농업과학연구소 첨단연구실 준공(노동)

대남
- o 북한 UN 상임대표, '국경요새화' 관련 UN안보리에 서한(중통)

대외

10.27.(화)

대내
- o 제18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노동·중통)
- o 양곡관리부문에서 밀가공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기술혁신경쟁(노동)

대남

대외
- o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주석의 북한 정권수립 78주년 축전에 답전(노동·중통)
- o 중국퇴역군인사업부 대표단 귀국(노동·중통)

10.28.(수)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 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자와 기념촬영(노동·중통)
- o 전면적 융성기를 이끌어가는 당의 영도력 선전(노동)
- o 전국 모든 교육단위에 교복호수적용 및 통계프로그램 <학부형 1.1> 도입(노동)

대남

대외

10.29.(목)

대내
- o 화성지구 5단계 등 각종 건설사업 마감 단계(노동)
- o 중앙은행창립 80년 기념보고회 진행(노동·중통)
- o 자유민주주의 대비 사회주의국가의 이념적 우월성 선전(노동)

대남

대외

10.30.(금)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무인항공기술발전-2026》전시회 참석(노동·중통)
- o 류경안과종합병원 창립 10년 기념보고회 진행(노동)
- o 성천군·재령군 등 지방 경공업공장의 자체 정상화 사례 선전(노동·중통)

대남

대외
- o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 일행 평양 도착(노동·중통)
- o UN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 논의 관련 김성 대표 담화(중통)

10.31.(토)

대내
- o 함경북도에서 복합알비료생산기지 건설(중통)
- o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백수십만그루의 기름나무모 생산(노동)

대남

대외
- o MSMT 회원국·EU 제재 및 공동성명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중통)
- o 조용원 당 중앙위 비서, 스위스 외무상과 면담(노동·중통)
- o 북한-스위스 외무상 회담 진행(노동·중통)
- o 한미 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 관련 국방성 대변인 담화(10.30. 중통, 10.31. 노동)

이달의 약사

- **10.01.** '김일성 종합대학' 설립(1946년)
- **10.01.** 「韓美 상호방위조약」 체결(1953년)
- **10.01.** 「남북 협력기금법」 시행(1990년)
- **10.02.** '남북 정상회담' 개최(2007년 10월 2일 ~ 4일, 평양)
- **10.03.** 개천절(민족의 날)(1998년 10월 3일 선포)
- **10.03.** 「10.3합의」(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 발표(2007년)
- **10.04.** '대자연 개조사업' 제시일(1981년)
- **10.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발표일(2007년)
- **10.04.**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계기 남북 고위급 회담(2014년)
- **10.08.**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일 ※1997년 10월 8일 추대, 2010년 9월 28일 재추대
- **10.09.** 북한, 미얀마 아웅산 폭탄 테러(1983년)
- **10.09.** 북한, 제1차 핵실험(2006년)
- **10.10.** 「조선노동당」 설립일(1945년)
- **10.10.** 제1차 노동당 대회 개최(1945년 10월 10일 ~ 13일)
- **10.10.** 제6차 노동당 대회 개최(1980년 10월 10일 ~ 14일)
- **10.10.**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일(1980년)
- **10.11.** '단군릉' 개건 기념일(1994년 10월 11일 준공)
- **10.11.** 「조선기자동맹」 결성일(1946년) ※1981년부터 3월 10일에서 변경
- **10.11.** 미국,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표(2008년)
- **10.12.** '만경대혁명학원' 설립일(1947년)
- **10.12.** 「미·북 공동성명」 발표(2000년)
- **10.12.** 「남북 상사 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2003년)
- **10.20.** 민족면역의 날(1997년 8월 6일 제정)
- **10.20.** 제2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2015년 10월 20일 ~ 26일, 금강산)
- **10.20.**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개소식(2004년)
- **10.21.** 「미·북 제네바 합의」 체결(1994년)
- **10.22.**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1991년 10월 22일 ~ 25일, 평양)
- **10.23.**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 개최(1972년 10월 23일 ~ 26일, 평양)

- **10.23.** 국토환경 보호절(1996년 11월 27일 제정)
- **10.23.** 매들린 올브라이트(前 美 국무장관) 방북(2000년)
- **10.23.** 북한,「금강산 관광지구」지정일(2002년)
- **10.23.**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사무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 합의서」채택(2013년)
- **10.25.**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기념일(1950년 10월 25일 참전)
- **10.25.** 「근로자」지 창간일(1946년)
- **10.25.** JSA초소·병력·화기 철수(2018년)
- **10.26.** 제2차 북한 경제시찰단 남측 방문(2002년 10월 26일 ~ 11월 3일)
- **10.26.**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2010년 10월 26일 ~ 27일, 개성)
- **10.28.** 「김일성군사종합대학」창립일(1952년)
- **10.28.** 과학기술연구사업 결산 및 대책수립의 날(1992년 1월 결정)
- **10.28.** 「남북 경제협력 협의사무소」개소(2005년)
- **10.28.**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07년)
- **10.29.** 「조선중앙은행」설립일(1946년)
- **10.30.** 울진·삼척 지역 북한 무장공비 침투(1968년)
- **10.30.** '지방 예산제' 실시일(1973년)
- **10.30.** 제18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2010.10.30.~11.5, 금강산)
- **10.31.** 「조선 올림픽위원회」결성일(1970년)
- **10.31.** 한국, IAEA 핵안전협정 서명(1975년)